(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25 1982년1월1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anuary 1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엽기적 살인마 유죄인정

전과자 올슨, 미성년만 11명 살해

경찰, 시체발견조건 범인 가족에 거액지불

(뱅쿠버)연방경찰(RCMP)은 80년11월부터 81년8월사이에 11명의 청소년을 죽인 캐나다 사상 최대의 살인마로부터 증거및 희생자가 묻힌곳을 알아내는 댓가로 범인가족에 10만 달러를 주기로 했음을 14일 뱅쿠버 경찰총장이 확인했다. 살인마 클리포드·올슨(42)은 14일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태도를 변경 유죄를 자백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클리포드 올슨의 손에 희생된 10대 청소년들중 6명. 왼쪽부터 크리스틴(12세), 다린(16) 레이몬드(15), 쥬디(14) 콜린(13), 샌드라(16).

올슨의 관선변호사 로버트·산츠씨는 "경찰이 범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정상궤도를 벗어나는부도덕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범인 클리포드·로버트·올슨은 지난 24년중 21년을 감옥에서 보낸 범죄성이 농후한 정신병자로 취급돼 왔고 15살때 이미 자기는 "캐나다 최대의 범죄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가족들의 삼남매의 말로는 클리포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손버릇이 나빴고, 학교에서는 쉽게 졸업하고자 지능이 보통 이상 불구, 일부러 모자란 듯이 행동, 저능아학급에 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늘 타인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즐겨했고, 그동안 브리티쉬·콜럼비아주, 앨버타주, 사스카츄완주등 각지를 종횡무진 들락날락하며 감옥생활을 해왔다.

처음 투옥된 것은 1957년 7월 17살때 강도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이후 탈옥, 절도, 사기등 수없이 많은 범죄를 밥먹듯이 저질러왔다

80년7월6일 뱅쿠버의 매츠키감옥에서 석방된 뒤생애 최대규모의 살인행각을 시작했을 때 경찰은 첫번째 회생자가 발견됐을 때부터 그에 혐의를 두었으나 결정적 증거를 입수 못했었다.

수십명 기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흄 검찰총장은 작년 8월 올슨이 체포된 직후 연방경찰과 연방검찰은 주검찰측과 상의, 시체1구가 발견될 때마다 1만달러씩 지불키로 범인가족측과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10만달러중 9만달러가 변호사에 의해 올슨의 부인과 아들 이름으로 예치돼 있다고 밝혔다.

건설청부업자인 범인 올슨은 이날 법정에서 9살부터 18살까지 소년 3명, 소녀 8명을 살인했음을 자백했다.

올슨은 10개의 살인혐의로 기소했었는데 재판 3일째인 이날 추가된 나머지 1개의 기소를 포함, 11건 살인혐의에 모두 유죄를인정했다.

범인은 회생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한뒤 10명은 구타 혹은 칼로 찔러서, 1명은 목을 졸라 죽였다. 시체들은 모두 뱅쿠버 교외의 외진 곳에서 발견됐다.

종신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개 25년 복역뒤 가출옥이 허가되나 재판장 맥케이 판사는 올슨은 절대 출옥이 허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애초에 증거제공 댓가로 1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나중에 범인의 부인으로부터 뺏을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 이나 범인이 변호사를 통해 이를 불가능하도록 서류상못박아버린 때문이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살인마 클리포드·올슨이 수갑을 찬채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댓가로 경찰이 10만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시했다.

서울노선 개설

사우디, 에어프랑스

(서울 15일=연합) 한국의 일간지 〈경향신문〉은오는 6월 중동 산유국 사우디 아라비아 항공사가 서울과 항로개설을 하며, 프랑스의 에어 프랑스도 7월부터 항로를 신설 서울과 파리 사이를 매주2번씩 운항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관계자들은 이 두항공사가 서울항로 개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바 없다며 아직 확정 발표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KAL)은 서울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제다를 매일 운항하며 서울과 파리는 일주일에 3번 운항하고 있다.

헤이그 방한예정

한미수교 경축사절

(서울=연합통신)알렉산더·헤이그 미 국무장관이 금년 6월 한국을 방문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5월22일로 1백주년이 되는 한미외교수립경축사절로 헤이그장관을 초청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문일시는 헤이그 장관이 동경에서 일본외상과 회담을 갖는 6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무부대변인은 헤이그 장관 초청계획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헤이그 장관 방한설을 일축했으며, 주한 미대사관 대변인도 단순한 예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이병권씨 회장재선

체육회 새해예산등 통과

82년도 체육회를 이끌어갈 캐나다 대한체육회장에 이병권 현회장이 재선됐다.

14일 토론토 블로아의크링톤호텔에서 열린 82년도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이회장은 최동주, 장추신씨와 경합을 벌여, 참석인원 18명중 14표를 얻어 제6대체육회장에 연임됐다.

심의섭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82년도 예산안등을 통과시켰다.

81년도에 체육회는8,189달러의 결손액을 가져와금년도 회장의 책임은 더욱 중요시된다.

이와같은 결손에 대해최성대초대회장은 "8.15체전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매년할 필요는 없다."고 긴급동의, 새 집행부에서 결정키로 했다.

회장선출에 이어 원장호, 박주삼, 심재환씨의 3명이 이사선임위원으로 피선, 신임이사를 곧 선임키로 했다.

회장선출후 이회장은"체육회에 현재 8개의 산하단체가 있으나 금년도 1개더 늘어난다. 이사 여러분 의 더 많은 지원을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8천달러 적자와 약7천달러가 부족한 중등부 아이스하키 모국 동계체전 참가 지원금문제등이 나와, 많은 논란을 벌였다.

일부 이사들은 체육회가 산하단체들 일일이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유니폼등을 선사하는 것이더 뜻있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병권씨

가정의 벗 한국일보

성장률1위 알비타

가구당 인구 줄어

(에드먼톤)캐나다통계국은 알버타주의 인구는 앞으로 20년동안 50%이상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2001년이 되면알버타주 인구는 280만, 세대수는 110만 가구가 된다.

이것은 캐나다 전국세대수의 10%를 차지, 성장율제1위가 된다.

한편 캐나다 평균 가족의 크기는 앞으로 20년동안 점차로 줄어 알버타의경우 현재 713,000세대, 평균가족수는 2.95명이 91년에 2.68명, 2001년에는 2.58명으로 떨어진다.

토론토대학 재정난

학생들 화재위험에 직면

토론토대학교의 재정부족으로 이대학 37,000학생들은 화재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대학당국자는 말한다.

토론토대학교의 연구및 계획담당 댄·랭 부총장은 주정부 보조삭감등 재정난으로 필요한 시설보수및 개선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건물 하나는토론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규칙 위반으로 120번이나 경고를 받았으며금년 새학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 현재 대학소유인 구 메트로도서관(St.George St.×College St.) 건물천장이 내려앉아 학생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금주의 행사▷

(1월18일~24일)

◇1월23일(토) 하오6시 사진협회 총회
곳 : 한국관(628 Bloor St.W.Tor.)
연락처 : 535-7772(이인덕)

◇1월23일(토) 하오2시 한인회 정기총회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755-9288

〔편집자주 : 본사는 교민사회의 행사를 매주 월요일자에 종합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사를 간접지원하고 있읍니다. 본란게재를 희망하시는 행사주관자는 전화 533-2361 김종환기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W(한국관앞)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찬영 변호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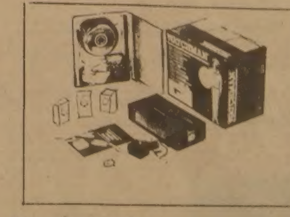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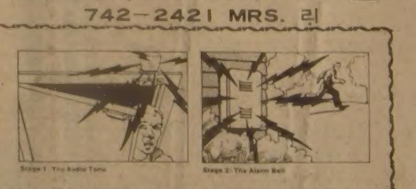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WATCHMAN™
PATENTED SECURITY SYSTEM
도둑을 방지합시다
(도난방지기 세일)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느 장소나 아름다운 현대식 모양으로 특별한 도구나 기술없이도 장치가능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PHONE NOW (416) 661-3161
사 장 : 쌘 디
한국인 : MRS. LEE
AFTER HOUR(EVENINGS)
742-2421 MRS.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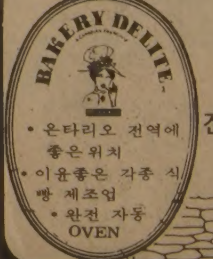


Manufacturer's suggested list only $299.95

coltron International Inc.
864 Alness St., Downsview (Toronto) Ont., Canada, M3J 2H5

I AM INTERESTED IN THE WATCHMAN SECURITY SYSTEM
PLEASE CONTACT IMMEDIATELY
NAME
COMPANY
ADDRESS
PHONE
TYPE OF BUSINESS: RETAILER ☐ WHOLESALER ☐ DISTRIBUTOR ☐

BAKERY DELITE
A CANADIAN FRANCHISE
20 LOCATIONS
* 높은 수입의 빵가게
* 후랜차이스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 완전히 훈련시킵니다.
* 모든 재정문제를 조정합니다.
* 우선 상업지대에 투자가능.
* 현금투자 35,000달러
* 예상첫해 매상 150,000달러



• 온타리오 전역에 좋은위치
• 이윤좋은 각종 식빵 제조업
• 완전 자동 OVEN
김 영 창
전화 : 883-4550
1-826-7150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중등부하키팀 동계체전참가
체육회 공식경기 인정

(서울=본사전화)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교포 아이스 하키선발팀이처음으로 제63회 전국체전동계빙상대회(27~29일)에참가하게 됐다.

체육회는 12일 캐나다팀의 출전을 공식경기로 인정키로 결정했는데 지난해에는 고교팀이 첫참가, 시범경기를 벌인바 있다.

체육회는 하계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동포팀의 적극참가를 유도, 동계체전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편 16일 한인회관에서 결단식을 가진 중등부팀은(단장 고성호) 선수 18명으로 구성됐다.

동팀은 21일 서울로 떠날·예정이다.

낙농위 제기능 못해
유제품 가격정책 오도

(오타와)농부들에 낙농품 생산 보조비를 대주거나 캐나다산 잉여낙농제품을 세계시장에 팔고, 국내낙농제품 판매촉진 보조금 지급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기구 캐나다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가 현재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데이빗·케이츠씨는 한 보고서에서 CDC의 운영이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유·김슨 판사도 지난 5월 발표된 CDC의 시장조사에 관한 특별조사보고서에서 CDC가 시민에게 알려진 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조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CDC가 시장조사기능을 남용, 가격정책을 오도하거나, 정부로 하여금 부적당한 개입을 하도록 유도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CDC는 연간 3억달러의 경비를 쓰는 기관이다.

미국 영주권자
2년까지 외국체류

(LA지사)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미국을 떠난 후 2년까지 외국에 머물 수 있으며, 일단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이라도 5년이 지나면 따로 입국을 위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유학생 비자제도에 M-1을 신설했다.

이와같은 이민국 정책변경은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 확정됐다.

레건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이 법안에 의하면 종전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허가가 1년에서2년으로 연장됐다고 랄프토마스 이민국 조정관이 12일 밝혔다.

또한 과거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재입국을위해서는 추방일자로부터 5년후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고쳐 5년 경과자는 일반입국자와 동일한 수속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HR4327로 표기된 이 법안에는 13개 중요항목의이민법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이내에 새로운 유학생비자 M-1이 실시되며, 현재의 F-1, F-2의 유학생 비자 이외에도 기능훈련이나 바정규 유학생들에게는 M-1비자로 분류케 된다.

그리고 J-1비자의 교환방문자로 입국한 사람은비이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교관 신분의 영주권 취득조항을 확대,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 발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연방이민국 공보실은 매년 1월중 실시한 외국인 주소등록은 폐지됐으나 영주권자만은 주소가이전됐을 경우 10일이내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고주의를 당부했다.

포르노업계두목피격
브루클린서, 조직범죄싸움

(뉴욕)

춘화제의 두목과 그아들이 4일밤 브루클린 주택가 제단에서 3명의 공격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달아나다가 아들은 총에 맞아 죽고 두목은 둔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집안에 있던 부인 1명도 총탄에 맞아 횡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죠셉·페페이노(60)와 그의 아들 죠셉·페페이노 JR(31)라고 밝히고, 부자는 이날밤 8시께 그레이브센드 지역의 LAKE거리에서 차로 좇아온 중무장한 3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은것 이라고 말했다.

3명의 괴한은 좇기는 부자를 향해 적어도 5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이때 아들 페페이노JR은 가슴에 총을 맞고 즉사하고 그의 아버지는 한쪽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다.

집안에서 횡사한 ZURA W부인(52)은 총격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집 2층 부엌에 있다가 변을 당한것.

부상 당한 페페이노는 콜롬보는조직범죄단의 거물급 단원으로 FBI리스트에도 올라 있으며 또 이자는 타임스퀘어의 춘화딜러로 지난 12월에도 플로리다에서 춘화 밀매를 모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중앙금리 14.81%
캐나다 달러는 83.84센트

한동안 떨어지던 캐나다 중앙은행금리가 2주째 오름세를 보여 14일 14.81%를 기록했다.

한편 캐나다달러는 13일 미화 83.84센트에 거래됐다.

"크리스천의 나갈 길"
한스·킹 서울서 강연

(서울 15일=연합)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에큐메니칼(초교파)신학자 한스·킹 박사가 17일 이틀간 예정으로 방한했다.

서독 튜빙겐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킹은 18일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것 방향을 잃은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나아갈 길」 주제로 강연을 한다.

튜빙겐대학의 에큐메니칼연구기관의 디렉터로 올해 53세의 킹은 현대 신학계에서 가장 역량있는 신학자중 하나로 꼽힌다.

가정을 이룬 분께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말없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걷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 불행한 사람의 침묵이 없었던들 행복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체호프〉

◆행복해지는 비결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에서 쾌락을 발견하는데 있다.

〈지이드〉

◆항상 위태위태한 듯한 느낌을 준다. 행운은 드문드문 찾아올 때가 보다 더 안전한 것 같다.

〈그라시안〉

◆남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법이다.

〈에센바흐〉

◆행복한 생활이란 대체로 고요한 생활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고요하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만이 참다운 환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버트란드·러셀〉

"얼굴 잘생기고 볼것"
성적, 직업적, 범죄에도 유리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로 갖추어야 할 것은 멋진 얼굴이다. 성적으로, 직업적으로, 심지어는 범죄적으로도.

인간의 매력에 관심을 가진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의 상당수는 연구결과 "성공의 비결은 아름다운 얼굴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은 일생동안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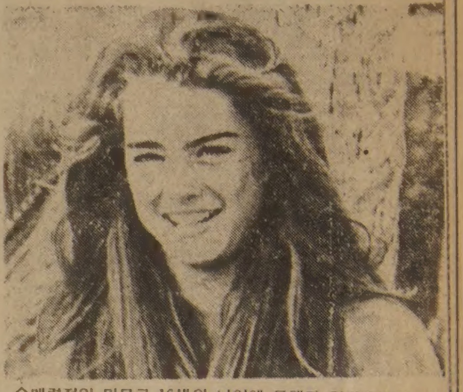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같은 능력의 잘생긴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못받고, 범죄를 했을경우 보다 긴 선고량을 받으며, 수술대에서 보다적은 주의를 받고, 비록 이성에게서 공공연히 거부당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의 제임스 올슨 박사그룹은 성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연구끝에 자기들의 시도가 비참하게 실패했음을 발견했다.

올슨 박사 그룹은 표본추출된 남학생들에게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믿게끔 설득했으나 남학생들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더 활동적이며, 성적으로 따스하며,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이없었다.

한편 매력이 없는 여성들은 냉정하며 비사교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분명히 이같은 편견은 매우 파괴적이 될 수 있다" 고 말하는 올슨은 "그러나 이 편견은 잠재의식 깊숙이 묻혀있어 나로서는 이 같은 생각이 어떻게 교정



◇매력적인 미모로 16세의 나이에 모델과 영화배우로 백만장자가 된 보룩쉴즈

될 수 있는지 복안이 없다" 고 덧붙였다.

예쁜 어린이는 그들의 지능과는 상관 없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 이유는 그들에 대한 선생들의 편견이라고 텍사스대학교의 쥬디·랭글로이스 박사는 말한다.

그녀는 "잘생긴 어린이가 더 영리하다는 확증은 없으나 부모와 선생이 그들이 그러리라고 기대하며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인다" 고 말했다.

토론토대학교의 케렌·디온 박사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를 연구한 결과 못생긴 아이가 저지른 비행을 더 좋지않게 보는 경향을 발견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조사대상자인 어른들은 못생긴 어린이들은 나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우려가 크다고 믿고 있다.

예쁜 어린이와 못생긴 어린이는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며 우정관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쁜 어린이들이 성장하면 그들과 같은 아름다운 동성과 거리를 멀리하며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고 다른 연구에서 발견됐다.

유타 주립대학교의 제랄드·아담스 박사의 연구는 호감있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범죄로 기소당했을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적으며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장기선고를 받을 확률이 적음을 보여준다.

그는 추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보려면 감옥에 가라고 권한다. 그 이유로 얼굴이 호감을 못주는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더욱 반사회적, 폭력적으로 되며 결과적으로 범죄 확률이 크다고 말한다.

그는 메릴랜드대학의 연구를 인용, 못생긴 남성은 잘생긴 남성보다 강간에 관련됐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아담스는 "매력있는 남성이 강간으로 기소당했을 경우 그는 흔히 '희생자'로 간주되며 강간당한 여성이 비난을 받는다"고 말한다.

커네티컷대학심리연구반은 여권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관련된 흥미있는 연구를 했다. 이들은 30장의 여성사진들을 준비했다. 그중 15명은 여권운동가이고 나머지 15명은 반대자이다. 양쪽다 잘 생긴여자와 못생긴 여자가 골고루 섞였다. 표본추출된 사람 들에게(그들의 페미니스트운동에 대한 태도에 관계 없이) 15명의 페미니스트운동 지지자들을 가려내라고 했을때 놀랍게도 이들은 잘못생긴 여자들을 골랐다.

미네소타대학교 사회심리학자인 엘렌버샤이드 박사는 사회계층을 형성하는데 사람의 얼굴모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매우적다고 말한다.

그는 또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오직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표면적 특성으로 얼굴모습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어느 사람과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육체적인 매력도 차츰 발견된다는 증거도 없지 않지만 그동안의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같은 설을 뒷받침하지못했다.

버샤이드와 그녀의 동료들은 매력있는 사람들이 더 민감하고, 굳건하고, 중용을 지키며, 사교적이며, 활동적이며, 친절하고, 성적으로 따스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인생을 최대한 즐길줄 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같은 신빙성있는 결론에도 불구, 인간의 매력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가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중 하나가 있다. 그것은 매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다.

◇"토요일밤의 열기"등 영화에 출연, 선풍을 일으켰던 배우 존·트라볼타

◇미국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와 노르만디 교차점에 세워진 「코리아 타운」표지판. 12일 선보인 이 표지판은 프리웨이 노상에 한인거리를 알리는 첫 표지이며, 10번 프리웨이와 노르만디 출입구 양편에 각각 2개씩 세워졌다.

코리아타운 표지판
LA 프리웨이에 첫선

(LA지사)LA프리웨이에 「코리아타운」표지판이 지난 12일 첫선을 보였다.

코리아타운 표지판은 산타모니카 프리웨이(10) 번에서 올림픽가로 진입하는 노르만디·애비뉴의 동서양쪽 지점에 각각 2개씩 모두 4개가 설치됐다.

이날 상오 11시 교포 각계 인사와 주정부 관리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캘리포니 운수성은 표지판 설치를 위한 간소한 기념식을 가졌다.

주정부 운수성의 데비드·로퍼 LA지역 부국장의사회로 진행된 식전에서 톰 브래들리 LA시장은 「한국커뮤니티의 팽창이 LA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며 「주정부는 이를 인지, 한국타운 중심가로 이어지는프리웨이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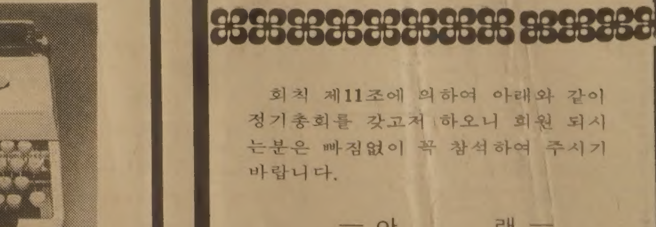
표지판 설치계획을 추진해온 코리아타운번영회 이희덕 회장은 「표지판 설치는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 인정받고 있음을입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표지판이 코리아타운 번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민수 나성총영사, 피터·오즈왈드 주정부 운수성 부국장등의 기념사가 있었다.

한편 코리아타운 번영회는 이기념식후 영빈관에서 표지판 설치를 지원 해온 김준문 시장보좌관, 샘김, 린·생크 운수성국장, 데비드·로퍼 LA지역 부국장, 톰·브래들리 LA시장, 브라운 가주 지사, 대빗·커닝햄 시의원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129.00

* 누구나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한글을 칠수 있읍니다.
* 교본으로 하루 한시간씩 6일간 연습으로 누구나 초급 전문 타이피스트가 될수 있읍니다.
* 사무실마다 가정마다 구비하고, 사무능률을 올리고, 어린이들의 IQ 도 올립시다.
* 타이프라이터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상징하는 최신 과학 문명의 이기입니다.
* 타자기의 사용 목적은 시간 절약에 있고 타자기의 생명은 배우기 쉽고, 빠른속도에 있읍니다.

판매처
(IL) ALBANY OFFC. SUPLY. CO. (312) 267-6000
(CA) SOKWANG INTERNATIONAL (213) 570-8288
(PA) SUNJUNG KONG (215) 527-1132
(NY) KIM'S CALCULATOR CO. (212) 937-8670

사진협회총회공고

회칙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회원 되시는분은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23일(토)오후6시
곳 : 한국관(628 BLOOR ST. W. TORONTO)

안건 : 1. 업무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보고
4. 82년도 예산심의
5. 임원개선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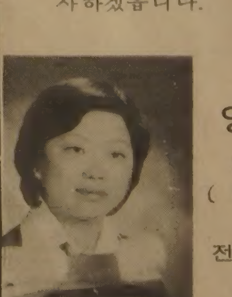
사진협회회장 이인덕

약국개업

WILLER'S PHARMACY

한국인 여자약사 탄생 : 양문정

★토론토대학 약학과 4년졸업.
★1년간 실습을 통해서 약국을 개업.
* 한국교민들께는 특별 가격으로봉사하겠읍니다.



양 문 정
1148 DAVENPORT RD.
(at Ossington Ave.)
전화 : 656-3351
656-3247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 · 발송부

〈신춘수상〉

세월이 바람되어

유인형 (문협회원)

◇유인형씨

살다보면 세월도 바람되어 뒤돌아온다. 미운 것도 고운 것도 세월앞엔 앙금처럼 가라 앉는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참으로 흐뭇한 바람이 되어 뒤돌아 온다.

정성껏 살아가는 일이란 즐겁고 가슴 뿌듯한 일이다. 쓰라리고 차가운 세상살이도 멋으로 된다.

오고 가는 인정이 많을수록 주변은 윤택해진다. 많은 친구와 신용과 높은 뜻을 간직한 사람은 부럽다.

우리들은 너와 내가 또 다른 공통분모를 창조하고 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세월의 앙금속에 바람을 만들고 있다. 물방울같은 우리란 그런것이다. 경외심을 갖고 삶을 바라보면 그냥 떨리어 올뿐이다.

묵은해가 끝나고, 새 날이 왔다. 신선한 아침에두 손을 맞잡고 눈 쌓인 지평선을 바라본다. 보일듯 하다가 멀리 사라져 버리는 야산이 있다. 진달래의 그 땅이다. 한줌의 흙을 싸들고 떠나온 곳이다. 지지리도 못나고 답답한 황토흙일지라도 정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떠났어도 아주 떠나버리는 건 아니다. 푸른 보리밭에 종달새가 둥지를 틀고, 서낭당 고갯길위로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그곳이 잊혀질리 있을까. 기나긴 풍상 속에서도 맑은 혼으로 숨쉬는 아침의 산과 강을 저버릴 수 있으랴.

착한 사람도 있고, 언제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포악한 무리들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섭리이다. 하늘은 행복도 주고 불행도 함께 준다.

사람에게도 밝은 태양이 오고, 짐승과 나무나 모든 무생물에게도 골고루 빛을 주신다. 그렇지만 어느날엔가 세월이 바람되어 다시 불어올 때에 준엄한 역사를 볼 수 있다.

「올해에는‥.」

다시 발 붙이고 우뚝서 주변을 돌아본다.

새날의 햇살이 비친다.

벌써 고사리같았던 아이들의 손이 어른의 손만큼 성숙해 버리었다. 부모의 키보다 한뼘씩이나 더 큰 것같다.

어느 사이에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간 것일까. 봇짐을 싸들고 오자마자 미친 사람모양 뛰어다니었다. 방황과 모색 속에 아이들의 성장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복지사회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같다. 경찰서는 찾아보기 힘든사회에서 바람직한 나의 것을 심지 못했던 것이다. 소용돌이 속에선 다 한번씩 홍역을 치르듯이 불필요한 일들에 시간을 소비하였다.

형제의 장점만을 찾아내기에도 바쁜데, 다 자라난 아이들에게 민망스러운 신경과민만 보여준 것같다.

감정과 기분이 앞을 서다보니 무엇인가 구심력도 없어져 가고, 전통적인 매력도 사라져 간다. 가슴을 울렁거리게 해주는 내것을 몽땅 집어던져 버리려 한다.

이 험난한 경쟁터에서아이들과 연결되는 내것이없을 때엔 남는 것이 무엇일까. 무관심과 수치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것을 청소해 버리는 과정에 놓여있다. 치열한 경쟁터에선 먼저 깨닫는사람만이 다음에 불어올 바람소리를 듣는다.

무엇인가 공허해지고 추운 것같으면 생동하는 처녀림을 거닐어 보면 번개처럼 스쳐가는 깨달음이있다.

사랑이란 혼자서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요란스런 곳에는 개성도 질서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살아남고 싶으면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이 해에는 서로 사이좋게 슬기로움을 모았으면싶다. 국제적인 싸움터에서 내가 흘린 땀의 댓가로 한사람의 형제라도 더 이곳으로 건너 오도록 해야 한다.

태고의 처녀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저 싱싱한 지평선이 우리의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식량과 자원을 공급해 주는 이 넓고 넓은 땅에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 큰 힘을축적하는 게 보람된 일이다. 불필요한 흉내나 내고 작은 이익에 우왕좌왕하다간 세월만 놓치고 만다.

또한 아이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밝은 내일을 어둡게 한다.

봄날이 겨울속에 파묻혀 있듯이 세월 속에 다음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 마치 새끼줄을 서로 꼬아 나가듯이 큰 이익에는 서로 만나야 한다. 능력껏 뻗어나갈 수 있는 이 터전에 이왕이면 한꺼번에 타오르는 진달래를 심는게 어떠하랴.

우선 머릿속을 텅 비게 한 후에 새해의 바람을 맞이한다.

가슴 태우던 까만 머리가 어느덧 희끗희끗 해 오고 있다. 세월이야 떠나면 그뿐이다. 그렇지만 청순하고 자랑스러운 저 아들 딸들은 어디로 불어갈까?

원색의 백설위에선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없다.

이렇게 살아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충만인가!

왔다가 떠나가도 다시 어느날엔가 바람되어 불어오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형제들이 듬뿍 협력의 정을 안고 건너오길 기다린다. 함박 웃음을 터뜨리며 자라나는 새싹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하늘도 하나이고 밝음도 하나인 것같이 우리들의꿈도 구심점을 찾았으면 싶다.

올해엔 더욱 땀 흘리며 통쾌하게 웃어봐야 하겠다. 세월이 바람되어 다시 불어오기 전에‥.

◇올해의 선수—AP가 선정한 81년도 남녀테니스선수에는 윔블던챔피언 존·매켄로 와 10대스타 트레이시·오스틴이 뽑혔다.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18)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번역

더욱 알 수 없는것은 주위에는 에스키모들의 카약이라기보다 우리들이 타고온 카누와 더 비슷한 배의 늑재가 남아 있었다.

오호토는 "인디안의 캠프가 여기에 있었군요. 보시오,여기에 그들의 우미악 카누가 있어요"하고 중얼거렸다.

수림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이렇게 멀리 이누이트가 살고있는 거칠은땅까지 올라왔었다는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호토의 말대로 이곳은 이땐 엘델리의 옛날 캠프장소였고 우리가지금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온 것처럼 이들은 사슴을 쫓아 이 북쪽까지 올라왔던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가슴아픈 발견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지나온 캠프와 이누혹(비석)은 틀림없이 사슴이 나타나리라고 기대되는 강과호수로 이사람들을 불러들였을것이며 이땐 엘델리가수림지대에서 나는 백양나무껍질로 카누를 만들어가지고 바렌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동안 많은 강과 호수주위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학살되고 도륙했다는것 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쿠이강은 이 작은 호수를 지나 북쪽으로 뻗혀있었다. 그다음날 우리는 육중하고 음산하게 강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강 언덕으로 올라가 살펴보았다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우리들은 강한 햇볕아래 파랗게 맑은 물이 서쪽 지평선까지 넓게 가득차 있는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백인이 이전에 한번도 내려다 보지 못한 얼음도 없고 지도에도 없는 광대한 호수였다. 지평선 서쪽으로 누워있는 호수연변은 우리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자석같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오호토는 우리들의 호기심을 아랑곳하지않았다. 한참동안 그는 우울하게 햇볕에 번쩍이는 호숫물을 바라보고 있다가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그 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가 공포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쯤해서 되돌아가는게 좋을거요. 사람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곳에 가서 캠프를 치는것은 몹시 위험해요"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들은 그에게 여러가지 물어보았으나 그도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곳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오호토가 그렇게 두려워 했던것은 자연스러웠는지도 몰랐으나 우리는계속 앞으로 나갈것을 고집했다. 폭포를 피하느라고 호수의 험한 언덕을 돌아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나르고 난후 다시 카누에 올라타기 전에 오호토는 잠시 멈추어 한줌의 작은 조약돌을 주워들었다. 카누에 올라타자 마자 오호토는사슴가죽끈에다가 이 작은돌들을 하나씩 길게 묶었다. 카누를 투명한 물위로 저어가서 호수 밑바닥이 보이지 않게 되자 오호토는 배위로 그의 긴 조약돌을 묶은 줄을 조심스럽게 옮겨가지고 소리없이 깊은물속으로 가라앉게 했다.

이것은 번쩍이는 호수밑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위로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이다.

17. 유령, 귀신 그리고 신

지금부터는 바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슴위에존재하는 유령과 귀신들에관해서 이야기해 볼려고 한다. 이름도 없는 호수를찾아헤매던 그당시, 이들 유령과 귀신들은 불안스럽게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할미우트의 세계에서 법은 인간의 사회적 영혼생활을 다스리며 또 이 법은 절대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추상적인것을 다루고 있다. 인간에게는 한가지 법이 있을따름이고 귀신(도깨비)의 종류는 셀 수 없을만큼 많다. 이들은 너무 많아서이할미우트가 이름을 대거나 설명을 할 수 없을만큼 구구각색이며 그 잠재적인세력을 거의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귀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시시한 대부분의 훈령을 매우 조심스럽게 준수해야 한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학생모집

본교는 연방정부에 신학교로 정식인가 됨에따라 금년부터 목회자 양성을 위한 M.Div.과정을 설치하고 일반정규 신학교와 같은 수업시간을 마련하여 아래와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원하시는분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모집학과 : 목회과○○명
* 자 격 : 대학졸업 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 학 제 : 3년(6학기이며 매학기 16학점)
* 수 업 료 : 1학점당 $30(입학금 $50은 별도)
* 수업일시 : 매주월요일 오후6시부터10시까지.
*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ROOM 311, 362
* 개강일시 : 1982년3월15일(월)오후6시
*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1월15일~2월15일 LEE'S PRINTING (2157 A WESTON RD. 244-2301)
* 기 타 : ①본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총회신학교(L.A 소재)에 1년 이수하면 목사로 안수받을수 있음.
②본교의 신과 졸업자는 몇개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수 있음.
③원서교부 기간동안 신청자가 5명이상 되지않을때는 보류됨.
④5명이상되어 개교된뒤 제출된 서류와 입학금및 수업료는 반환되지않음.
* 문 의 처 : 977-5202, 244-2301, 281-5706　1982년1월10일

미주한인교장로회 캐나다 노회직영
칼빈신학교장 : 계 화 삼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서울大등 名門 경쟁률 낮아

前期大 원서마감 中下位圈大學에 몰려

서울大 8개學科 定員미달

延大2·4、高大·梨大2對1안돼

釜山1·26 慶北 1·5 嶺南3·7對1
全南大1·6 全北大1·9 東亞大1·95

전국 72개전기대학(11개교육대학포함)의 82학년도 대입원서접수가 13일 마감됐다。지원대학및 학과선택을 놓고 수험생들이 심한눈치작전을 벌인 이날 원서마감결과、지원자들이 일부대학과 학과에 몰리는 편중지원현상이 두드러져 각대학에 미달사태가 속출했다。또 延世大를 제외한 서울大、高麗大、梨花女大、西江大등 명문대가 낮은 경쟁률을 보인반면 중위권이나 하위권대학들이 높은경쟁률을나타냈다。

延世大는 지난해와 비슷한 2·4대1의비교적높은경쟁률을보였다。학과간의 지원율도심한격차를보여중위권대학의 일부학과가 격심한 경쟁률을 보였는가하면 각대학에 모집인원에도 미달하는 학과가 속출했다。

지난해 1·8대1의 경쟁률을보인 서울大는 금년에도 지원율이저조、하오4시현재 1만1천5백명이 원서를 접수、전체평균 경쟁률이 2대1에 못미쳤고 高麗大、梨花女大、西江大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이들대학들은 전체경쟁률이 낮은데다、학과에따라서는 모집인원을 간신히 넘은곳이많아 오는22일의 전형일에는 미달학과가 많을것으로 우려된다。

成均館大는 1·8대1의 (하오4시 현재) 경쟁률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산업공학과로 6·2대1、가장 낮은 학과는 1백30명정원에 73명이 지원한 전기공학과、그밖에 10개학과가 정원미달이었다。

한편 淑明女大、弘益大、가톨릭의대등은 지난해에이어 올해에도 3대1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漢陽大는 하오4시40분현재 법정대 3개과、상경대2개과등6개학과가미달이었고 최고지원율은 연극영화과의 11·2대1이었다。

慶熙大는 하오5시현재 평균2·2대1의 경쟁률에 체육학과가 8·2대1로 높았고 법률학과등 6개학과가 극히 저조했다。

경쟁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학과는▲檀國大 일어일문과(야간부)로 52명정원에 9백7명이지원 17대1을 기록했고▲外大회런어과가11·7대1▲漢陽大 연극영화과 11·2대1▲中央大 간호학과 11·5대1▲淑大 아동복지학과 7대1이었고 미달이나 모집인원을 간신히 넘은 학과는▲高麗大 국문과、경제과、수학과、기계공학계、조치원분교의 어문계열▲延世大아동학과▲慧大시청각교육과、행정학과、경제학과▲西江大국문과、화학과、경제학과▲外大동리학과▲中大경상계등이었다。

한편 서울大도 인문Ⅰ、자연Ⅰ、교육Ⅲ、의류학과、음대작곡과성악과、농가정과、농업교육과、농촌지도교육등 8개학과에서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었다。成均館大는 11개학과가 미달、독문과、영문과、중문과、연계에서통계、경제과에、화학공학、기계공학、전달로나타났다。 미달에 分校 지원상황도 대체로 저조했다。

한편 전국지방대학은 이날 하오5시현재 嶺南大가 3·7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淸州大2·3대1、全北大1·9대1、全南大1·6대1、東亞大1·95대1、釜山大 1·26대1、慶北大와 濟州大가 각각 1·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大學으로가는 마감窓口 치열한 눈치작전끝에 지원학과나 계열을 결정한 수험생들이 마감일인 13일하오부터 접수창구에 일시에 몰려들어 큰혼잡을 빚었다。【13일하오 3시께 서울Y대학접수창구에서】

해설

虛數지원 줄었으나 제2·3志望이 伏兵

中位圈大러시…充員不能科도

마감된 경쟁률 일단「最大値」

1對1에도 百%合格 안돼

13일 밝혀진 각대학의 모집계열및 학과의 경쟁률은 지난해의 경쟁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있다。 무제한 복수지원이 허용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2개대학이내로 제한돼 경쟁률속에 포함된 허수(虛數)의 폭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은 2개대학중1개를 골라야한 최종선택에 상당한 도움을줄 수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우선 이날 마감된 경쟁률은 22일전형당일 나타날 「실제경쟁률의 최대치」의 의미를 가진다。

실제 경쟁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늘어날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것은 모집인원을 제1지망자로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70%나 혹은 80%만을 채우기때문에 1대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전원이 합격을 보장받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대학지원에서 가장두드러진 특징은 이른바 편중지원경향이라할수있다。 수험생들이 한결같이 안전위주의 선택을 한나머지 명문대의 경쟁률이 크게하락한반면 중위권이나 하위대학들은 높은경쟁률을보였다。 특히 서울大·高麗大등은 전체적으로는 2對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으나 학과에 따라서는 모집인원에 미달한곳이 많았다。 高麗大 미학과는 하오4시30분현재 국문·불문·사학·심리·영문·조치원분교등 공학계열 12개학과에서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들 미달학과는 전형일까지는 상당수가 면할지 모르나 이중 상당수가 빠져나갈것이므로 또 2차모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지망자의 절대수가 모자라 근본적으로 채우려해도 지원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일부대학의 미달충원과는 다른 대학의 높은 경쟁률은 수험생들의 지나친 눈치작전의 결과다。 한편 國民大、檀國大、淑明女大등 중위권대학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중에도 國民大 일부학과는 7~8대1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원율의 기복은 올해입시에서 학과에 따라서는 소위명문대의 합격선보다 비명문대의 합격선이 더높아지는 기현상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金時福기자】

江陵·서울經由 中共行제시

東京·北京直航路 2개路線 동시개설해야

정부、ICAO에 意思전달

정부는 13일 東京과北京을 운항하는 日本및 中共민간항공기의 한국領空통과를 허용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국領空을 통과하는 日·中共노선은 江陵—서울을 거쳐 中共의 天津 또는 포토우를 경유、北京으로 연결되는 直航노선이 돼야한다는입장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측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訪韓중인ICAO理事會의 아사드·코타이트의장과 가진 협의를통해이같이 제시하고 문제가되고있는 日·中共간의 韓半島상공을 통과하는 3元航路 개설과관련、『南北韓상공을 통과하는 日·中共간의 2개노선이 거리와 시간면에서 상호균등하고 편리한 노선으로동시 개설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타이트의장은 이에대해 『한국측 제의가 東京—北京간의 最短직선노선의 개설을 추진해온 ICAO측의 기본원칙과 부합되며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보장한다』고 말한것으로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ICAO측과의요담을통해『ICAO측이 南北韓영공의 2元노선개설과는 별도로 현행東京—上海노선을 단축하는 문제에관해서도 우리측과 의견을교환했다』고 밝히고 이문제를앞으로도 계속 협의키로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東京—北京간 2元航路는 서울—北京의 南韓노선과 東京—瀋陽—北京의 北韓노선으로 ICAO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이같은 2元항로개설을위해 한국、中共、北韓및 日本과 외교적 교섭을 벌여왔다。

정부는 ICAO측이 제시한 2元航路의개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동시개설을요구하고 日側으로하여금 北韓측항로를 이용치않도록 외교적인노력을 벌여왔다。

黨政협조 窓口一元化

民正 전문위원·部處기획실장

정부와 民正黨은 13일黨政협조 窓口를 黨의 전문위원과 행정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一元化 하기로했다。

이날 정부 제1장관실의주선으로 民正黨 중앙당사厚生館에서 열린 黨政實務協議會는 黨의 전문위원들과 행정각부처의 기획관리실장및 外務의 次長들간에 실무협의채널을 마련키로하고 중요정책은 立案과정에서부터 1對1로 이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조를 갖기로 했다。

韓容錫전문위원실장을포함한 8명의 黨전문위원、金喆壽정책국장등 9명의 黨정책실무자들과 정부 34개部處의 기획관리실장및 次長들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법률안▲施行令案▲대통령에게 보고할 중요정책등은 반드시黨政협의를 거치도록 결정했으며 그밖의문제에대해서도 수시로 상호협의키로 했다。

黨職사퇴 結論못내

民韓 첫黨務會議서 兩論

民韓黨은 13일상오 중앙당사에서 새해 첫黨務회의를열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黨職者들의 一括辭退문제를 논의했으나 贊反兩論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회의에서는 黨6役뿐아니라 모든 당무위원들도 사퇴를 해야된다는주장이 정식으로 제기됐다는점에서 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견이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분열의인상을 줄수가 있다』면서『黨內 결속을통해 민주주의의 土着化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당직자 辭退論을 처음 제기한 韓英洙정책심의회의장등 일부 黨務委員들은『創黨1주년을 맞아 총재가 소속의원의 능력과개성을 충분히 파악했다고보아 총재가 능력에따른 黨職人選을 할수있도록 잇權을 주자는 뜻에서 당직사퇴를 주장한다』고 그이유를 밝히고 『특히 지난해 黨總에서 黨3役의 不和說까지 나오는등 黨職者간에 팀웍이 이뤄지지않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총재가 소신껏 黨을 이끌수있도록 黨職개편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洪惟善한국일보社발행인이 최우수신인으로 선정된 河亨柱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있다。

한국體育新人賞 시상

本社제정 19회 河亨柱등 3명에國威선양당부

한국 스포츠의 미래 주역들을 선정、이들을 격려하는 제19회 한국신인 체육상 시상식이 13일하오2시、한국일보社 13층松岩홀에서 베풀어졌다。

이 자리에는 최우수 신인으로 선정된 河亨柱(20·유도·동아대)남자 장려신인 李鍾敬(20·배구·경북사대부고)여자 장려신인 梁英子(18·탁구·이일여고·유럽원정관계로부친 梁炳權씨가 대리참석)등 3명의 수상자와 曺相鎬대한체육회장、가족、친지등 1백여명이 참석、수상자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한국일보社와 日刊스포츠社가 공동 제정、한국스포츠 주역들의 산실구실을한신인체육상 시상식은 金鍾烈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洪惟善 한국일보발행인이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그리고 曺相鎬체육회장은 치사를 통해 선수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줄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있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서 국위를 선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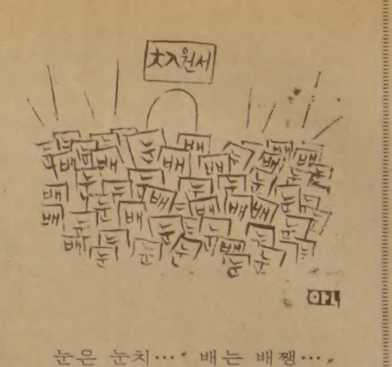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다과회가 베풀어졌다。

신설 年金管理公團 이사장에 尹恒烈씨

정부는 13일 신설되는 공무원年金管理公團 이사장에 尹恒烈前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尹이사장略歷=▲京畿始興출신·45세▲서울大정치학과·행정대학원卒▲재무부國庫관리실장·농수산부食糧국장·農政차관보▲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 ([illegible])

社會漫評



눈은 눈치…, 배는 배짱…,

地平線

孫子兵法에 先勝後戰이라는말이있다。싸워서 이길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게끔 해놓고 싸우면 이긴다는 뜻이다。요즘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말일것같다。먼저 좋은 성적을 따놓은 고득점자들은 남의눈치를 볼것도 없이 당당하게 입시원서를 냈는데 그렇지못한 수험생들은 눈치와 눈치의 싸움을 치러야했으니 말이다。▼그건 그렇고 2개대학 복수지원이란 제도때문에 예년에없이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쳐야했던 이번 지망생들은 짙은 안개속과 같은 입시장마당을 뚫기위해 카폰이 달린 자가용까지 동원、접수창구의 혼잡도를 알려고「안개작전」마저 폈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에머물렀다고한다。생각컨대 일류학과에 들어간다고 꼭 인생에서 성공하는것은 아니지만 入試에도 어떤형태건 작전이 있을법은 하다。인생살이를 하나의 전쟁으로치면 名將나폴레옹을 無名의 參謀 몰트케가 꺾은 作戰하나만 보더라도 天才보다 앞을 내다보는 첩보력과 조직력이 더필요한것도같기때문이다。▼머리좋기로 이름난 나폴레옹은 徵兵制를 처음실시해서 常勝의師團을만들어 유럽을 석권했었다。다른나라에서는 傭兵밖에 몰랐는데 그당시의상식을깨고 무기쓸줄도 모르는 농사꾼을 돈도안주고 대량징집해서 師團을편성、기동성있게운용하여 승전했다。그나폴레옹을 물리친사람이 프러시아의 몰트케다。나폴레옹같은 한사람의 슈퍼리더는 못가졌지만 참모본부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兵站의 중요성에 주목해서 철도를 군사면에 끌어들인것이 전쟁에 결정적勝因을 만들었던 것이다。나폴레옹은 猛將이고 勇將이었지만 몰트케는 지휘관을한번도 치르지못하면서도 參謀들의 힘을빌어이긴셈이다。▼이번 입시 작전에서 더욱특이해진 것은 평소의 성적이 좋아야함은 물론이겠으나 지망학과 선택에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두뇌플레이를 시도하려했다는 점이다。몇몇 高校의進學지도에서 그리하여 성공한 예도보인다。하나 긴인생으로 칠때 어느학과가 꼭 나은 것이란 보장은 없다。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으면 더 성공할수있는 것이다。無名의 參謀가 나폴레옹을 꺾은 故事를 위로삼아 入試작전을 짜는것도 있을수있지만 역시正道는 평소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길을 걷는것이 중요한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 [illegible] 한국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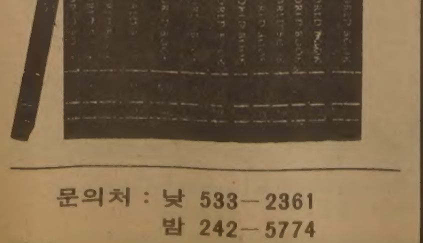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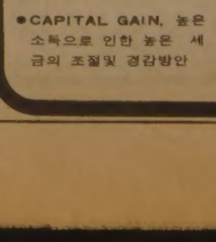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종합보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OPEC、油價 추가引下"

야마니言明 배럴當50~70센트정도

구체적 時機는 안밝혀

"重質油價 하락幅 더클듯"

【런던12日AP=聯合】아메드·자키·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石油相은 12일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油價가 배럴당 50~70센트 추가 인하될것이라고 말한것으로 런던에서 발행되는 아랍語잡지 알·두스투르가 보도했다。

야마니석유상은 OPEC의 기준원유가격이 지난해 배럴당 평균 34달러선으로 떨어진데이어 또다시 배럴當50~70센트 인하될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구체적인 가격하락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야마니석유상은 또 중질유의 가격하락폭이 경질유보다 클것이라고 말했다。

"西方의 石油소비 앞으로는 늘어나"

美코노코社보고

【뉴욕12日UPI=聯合】지난79년에 하루 5천1백70만배럴로 절정에 달했다가 80년에 4천8백90만배럴로 떨어진 비공산권의 석유수요는 앞으로 연평균 1%증가를 보여 오는 서기2000년에 5천9백80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의 코노코社가 11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79년 하루 3천80만배럴에 달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은 80년에 2천6백80만배럴, 81년추계 2천2백50만배럴로 계속 떨어진 후 90년에는 2천3백만배럴, 2000년에는 2천8백만배럴로 다시 늘어날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계원유가격은 앞으로 수년간 상승률이 인플레율보다는 낮을것이나 그후부터서기2000년까지는 인플레율보다 2~3%속도로 높아질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非共産國은 앞으로는 지난70년대보다는 석유공급위기에 덜 취약할것이나 그 취약성은 여전히 상존한 것이므로 유전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써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訪蘇중인 波外相、레닌墓에 獻花

요세프·키레크 폴란드外相 (중앙) 이 레닌묘에 헌화하고 있다。이사진은 소련타스통신이 배포한것임。【모스크바13日UPI&共同=聯合】

蘇、波軍政지원 다짐

兩國外相회담통해 公約제시

【모스크바12日UPI·AP=聯合】소련은 12일 폴란드軍지도부의 국내위기수습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軍政당국에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은 모스크바를방문한 요제프·치레크 폴란드외상과 가진 2일간의공식회담을 통해 그와같은 소련의공약을 제시했다。

회담폐막후 소련의 관영타스통신을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외상이 이번회담에서『유럽지역의 균형과 평화체제내에서 요충을 점하고있는』폴란드가 그 우방과 동맹국들의 지원아래 현난국을 성공적으로 극복할수있으리란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타스는 그로미코가 소련지도층을 대표하여 폴란드에대한 소련의 지원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波"계엄령 내달에 解除"

副首相밝혀 철저한 再教育 先行조건

【바르샤바12日AP·UPI=聯合】폴란드당국은 작년 12월13일 선포된 계엄령이 오는2월1일까지는 해제될수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예르지·오즈도프스키 폴란드부수상이 12일 밝혔다。

오즈도프스키는 이날 서방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계엄령해제일정은 아직 잡혀있지않으며 계엄령해제시기는『상황에 좌우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령의 해제에 앞서 폴란드사회의『철저한 재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폴란드의『정상화』는 자유노조가 탄생한 80년8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임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폴란드당국은 자유노조를 모든행정기관에 흡수, 용해시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웬사逐出 고려

波、계엄協力요구 계속拒否로

【런던12日UPI=聯合】폴란드계엄당국은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계엄당국에 대한 협력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그를 축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런던의 데일리·텔리그라프紙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르샤바의「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계엄당국이 자유노조란 명칭을 그대로 붙인 관제노조를 창설한후 새 지도자를 옹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바웬사가 TV에출연해 사태진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달라는 당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채 18人노조지도층이 배석하는 조건하에서만 對當局협상에 임할것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戰艦 뉴저지號 太平洋艦隊 배속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수리중인 戰艦 뉴저지호(5만7천톤)가 83년10월 태평양함대에 배속될것이라고 日本의 아사히신문이 13일 정통한 美해군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뉴저지호는 제2차대전과 한국동란 및 월남전에 참가한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레이건美행정부가 소련의 극동군증가에 맞서 해군력의 보강을위해 다시 수리、현역으로 복귀시키게 된것이다。

中共、美에 강력抗議

對臺灣 在來군용기 販賣결정에도

【北京13日UPI=聯合】중공은 레이건美행정부가 臺灣의 최신예전투기공급요청을 거부하는대신 기타 군용기는 계속 臺灣에 판매할것이라는 방침에대해 12일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중공외교부는 이날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중공을 방문중인 존·홀드리지美국무성차관보와 중공당국사이에 미국의對臺灣무기판매문제가 협의되고있는것과 때를같이하여 미국정부가 對臺灣무기 계속판매결정을 발표했다고 지적,『중공정부는 이에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中共외교부대변인은 중공측이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가 중공의 主權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워싱턴과北京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고 전제하고 중공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어떤 일방적 결정도 수락할수 없다고 말했다。

"美·中共외교관계格下임박"

워싱턴 外交관측통、事態분석

【워싱턴12日UPI·時事=聯合】레이건 대통령의 對臺灣최신형전투기판매 거부결정에도 불구, 중공이 미국에 모든무기판매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것은 美·中共관계가 냉각될것이라는 신호이며 양국 외교관계의 격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외교관측통들은 12일 분석했다。

관측통들은 중공은 레이건행정부가 더이상 臺灣에무기를 제공할수 없도록 단단히 쐐기를 박기위해 양국간의외교관계를 걸고 일대모험을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워싱턴당국이『어떠한 무기의 對臺灣제공도 반대』라는 중공의 명분을 손상시킬경우 중공은 對美외교관계를 격하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 서방외교관은 중공의 對美 항의성명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공의 외교관계 격하조처가『매우 임박』한 것같다고 말하고 이같은 외교관계 격하에는 양국이 서로 대사를 소환시키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美고위관리들도 레이건 대통령의 對臺灣최신형전투기판매동결조처에도 불구、중공이 강력한 對美항의를 제기한 것은 양국관계가 냉각될 조짐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中共침공 考慮안한處事다"

臺灣、美의新銳機販禁에 論評

【臺北12日UPI·AP=聯合】자유중국은 12일 레이건美행정부의 對자유중국신예전투기판매금지결정이 중공의 무력침공가능성을 고려하지않은 조처라고 공식논평했다。

對중공관계를 의식한 미국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류해온 자유중국은 이날 온건한 어조의 外交部성명을 통해『우리는 중공이 무력통일의사를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면서『우리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충분한 自衛力을 갖출수 있도록 미국이 美·臺灣관계협정에 의거、방위무기를 공급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개속의 워싱턴=北京

對臺灣 고성능武器판매 왜 취소했나

美의 中國政策 불투명에 線을 분명히 긋자는立場

폴란드式 自由勞組조짐 對處도

중공은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문제를 가운데둔 줄다리기에서 일단 승리를 거두었지만 계속 줄을 늦추지않고 있다。

레이건美행정부가 11일 대만에 新銳機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외무성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F5E전투기를 새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것마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공의 이같은 초강경자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출범초부터「2개의 중국」을현실화하려던 레이건행정부의 불투명한 중국정책에 가부간 線을 분명히 긋도록 옥박지르고 나선것으로 풀이할수있다。

중공의 내도는 분명하다。

鄧小平정권은 80년대의 3대중요과업으로 경제개발사업과 함께 중국재통일、소련패권주의의저지를 설정하고 있다。

중공은 소련을 견제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두가지 목적을 아울러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보다는

鄧小平의 背水陣

미국을 중시하는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미국과 긴밀한관계를 유지했지만 일단 그것이 중국재통일 문제와 관련될때 중공은 이를 용납할수없는 것이다。

鄧小平이 지난번 헤이그 北京방문시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물러나게 될것이라고 말했고 또 최근 부수상 李先念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趙紫陽내각의 퇴진위협이 있다고 경고한것은 단순한 경고만은 아닐것이다。

鄧小平정권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곤경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4개 현대화노선을 들고나온 鄧小平정권의 정치적기반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토대로 굶주렸던 중국인민의 배를 부르게 해준다는 소위 실용주의경제정책에 있다。

그러나 鄧小平정권의 개방적인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자연농지와 개인기업을 허용하고상여금지급과 능력급제도등의 개인인센티브 도입으로 근로자의 봉급이나 수입이 어느정도 향상되었으나 이에따라 인플레가 유발되고 물가가 치솟는 등 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한 지방공장에는 인플레、물가고때문에『현재의 高賃金보다 차라리 毛시대의 低賃金이 낫다』는 내용의 표어가 나붙기도 했다。

실업문제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자라났고 일부 지방노동자들은 폴란드式 자유노조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마저 있었다。이른바 중공의 폴란드化 조짐마저 엿보인다는 말이다。

한편 毛澤東式「공산주의」를 포기한 鄧小平노선에 반대하는 毛추종세력은 이같은 경제정책 실패를 물고늘어지면서 국가下部構造를 규합、권토중래의 날을 고대하고있다。

鄧小平정권은 현재 黨및 공무원사회의 상층구조는 장악하고있으나 中·下部구조는 아직도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現정권이 펼치고있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에 상당한 회의를 보이고 있으며 만일 이것이 실패할경우 소위 文革派가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태를 관망하고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있다。

이에따라 관료사회에는 일사불란한 행정체계가 갖추어지지않고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있다。

鄧小平정권은 관영언론기관을 통해 국영기업의 탈세、관리들의 횡령및뇌물수수、공공재산절취등 중공사회의 부패유형을 폭로하면서 2천만 공무원에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것임을 공공연히 예고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인민의 꿈인 중국재통일문제와 관련한 對대만무기판매문제에서 한걸음이라도 양보한다면 鄧小平의 말대로 현정권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않다。

미국의 對대만FX機판매문제는 중공이 지난해 辛亥혁명 70주년이라는 시점과 孫慶齡사망을 계기삼아 대만에 대해 적극적인 和平공세가 별로 실효를 거두지못한 뒤끝에 제기된 말썽이어서 중공지도부의 자존심을 몹시 다쳐놓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美中관계정상화이후 미국이 대만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對外的으로 중공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다。

美蘇를 모두 초강대국으로 몰아붙이며 제3세계의 기수를 자처하며 국제사회에 도약했던 중공의 비동맹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밀착관계로인해 그빛이 퇴색했고 이를 틈타 소련은쿠바를 앞세워 제3세계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최근 중공이 美蘇는 모두 초강대국이며 자신들은 영원한 제3세계 친구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對外的 이미지 실추를 회복해보자는데 있다고 볼수있다。

제3세계를 향한 중공의 집념은 작년 유엔사무총장선출을 둘러싸고 미국과 벌였던 끈질긴 거부권행사싸움에서도 찾아볼수있다。

중공이 현재 北京을 방문중인 홀드리지국무차관보를통해 전달한 미국의 부탁을 거절하고 폴란드軍政을 지지하고 자유노조운동에 대한 반대자세를 고집한것은 對대만무기공급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알력때문 뿐아니라 초강대국에 의한 他國의 내정간섭에 반대한다는입장을재천명한것이다。

중공자체가 폴란드化의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자유노조를 거부하고 소련 또는 西方의 介入이나 간섭을 반대하면서 軍政은 폴란드 자체의 문제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수밖에 없는것이다。

현재 美·中共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마찰이 양국관계의 격하로까지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짙게 나돌고 있지만 양국관계가 극한상태로 가기에는 서로가 상대편의 필요성을 잘 알고있다。

중공외무성의 성명은『對대만 무기판매문제는 중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없으며 美·中共 양국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차후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의 가능성만은 열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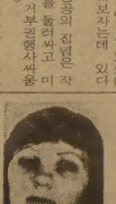
【朴永喆기자】

◇LA코리아타운 看板건립식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입구표시간판의건립식이 12일상오11시(현지시간) 거행되고있다。삽을든사람이 톰·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시장이며 제일왼편에 박민주LA주재한국총영사가 서있다。【로스앤젤레스12日UPI=聯合】

海外토픽

붉은旅團 용의자 무시女人 도지어 拉致관계 集中추궁



◇프란카·무시

이탈리아도시게릴라「붉은旅團」용의자 프란카·무시女人(27)。이탈리아경찰은 무시가 지난달17일 붉은여단에 의해 납치된 美육군준장 제임즈·도지어의 은닉처를 알고있을 것으로보고 집중신문을 하고있다。무시는 북부이탈리아에서 열린 旅團비밀회의에 참석하고 로마에 온후 체포됐다。무시는 도지어장군납치범들이 거물급 단원인 지오반니·센자니에게 도지어장군을 신문해줄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전달임무를띠고 있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로마=AP】

記者들에 防彈조끼

★美CBS·TV서 결정

로널드·레이건 미대통령을 수행、취재하는 미CBS·TV의 기자들에게 방탄조끼가 지급될 것이라고 CBS·TV의 한 직원이 12일 밝혔다。

방탄조끼의 필요성은 지난해 12월 CBS 카메라맨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지난봄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당시 대통령의 비밀경호원 전원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의 지급을요구。

한편 CBS·TV측은 리비아의 국가원수 가다피가 레이건 대통령살해를 위해 암살단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있기전부터 카메라맨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워싱턴=AP】

3개運動통합

정부는 공장새마을 운동、품질관리운동및 생산성향상운동을 통합、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이들3개운동은 산업사회의 질적수준향상이라는 점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으나 추진기관이 공업진흥청(품질관리운동) 大韓商工會議所(공장새마을운동) 韓國生産性本部(능률향상운동)으로 다원화되어있어 산업능률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기업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이3개운동을 통합키로 했다。

外信안테나

◆팔操縱士、니카라과派遣

팔레스타인조종사들이 니카라과에 파견되어있으며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앙골라와 엘살바도르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고 베이루트의 좌익 아스·사피르紙가 12일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의 말을 인용、보도했다。【베이루트=AP】

◆대처英首相아들 失踪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최근사하라사막횡단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지난8일부터 소식이 두절된 아들 마크·대처(28)군의 신변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있다고 12일 말했다。

수상관저의 한 대변인은 대처 수상이 최근 마크군이『공식적으로 실종』됐다는 통보를 받고、이 통보를 조용히 검토하면서 마크군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믿고있다고 전했다。【파리=AP】

팔自治문제 協議

헤이그·알리會談

【카이로13日UPI=聯合】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이틀간의 이집트방문을위해 12일밤 카이로에 도착、카말·하산·알리이집트외상과 1차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자치문제를 논의했다。

메아리

최근 西歐에서는「얄타體制」是非가 때 아니게 벌어지고 있다。바로 1월초 칼·슈미트 西獨수상이 美國을 방문했을때 記者들과 회견한 자리에서「얄타體制」옹호론을 一席하였다。

『西方勢力은 1945년에 얄타에서 유럽을 勢力圈으로 분할하는데 합의하지 않았던가? 이제와서 東歐圈과의 힘의 균형을 깨뜨린다는것은 바로 戰爭을 뜻하는것이다…』

이것이 슈미트의 옹호론이다。이에 앞서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은 新年辭에서 같은얄타體制 변경타당論을 폈었다。社會黨출신인 미테랑 대통령은『얄타協定의 철폐를 西歐側에 허용한다는 모든 조치는 있을수있는일이다。다만 철폐를 시도함으로써 이現實이 뒤죽 박죽되어서야 안되겠지만』하고 얄타體制자체에 화살을 꽂았었다。

미테랑의 發言은 드·골이래 強大勢力政治에는 反旗를 드는 프랑스의 外交氣質을 밑바닥에 깔고 얄타體制를 비판한 것이긴해도 다른한편으로는 프랑스의 가까운「友邦」西獨을 겨냥하고 있었다。

폴란드事態에 따른 美國의 對蘇制裁措置를 놓고 프랑스를 비롯한 EC(유럽공동체) 각국이 百퍼센트 美國의 방침에 추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對蘇制裁자체에는 일응모두 찬성 지지하고있다。다만 폴란드에 대한 直接制裁에 있어서는 조건을 달리하기는하나、대체로 蘇聯에 制裁라는 압력을 넣음으로써、그리고 폴란드에게는 西方이「당근」과「채찍」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폴란드의 계엄령해제나 軍事政權의 강압중지가 실현될수 있다고 본 것이다。

얄타體制 是非

한데 西獨만은 이런 見解에서 좀 벗어나 있었다。西獨의 슈미트首相은 작년 12월초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본을 방문하였을 때 그 앞에서 東西 양진영에 대한 西獨의 역할에 언급、「通譯者」라고 규정하였다。당시 西獨은 소련의 西部시베리아와 유럽사이를 잇는 天然가스 수송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주고 그대신 소련으로부터 25년간 天然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에 서명하고 있었다。西獨은 소련이 내미는 돈 방석에 앉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西獨은 소련이나 폴란드에「制裁」를가하면 폴란드를 오히려 소련에 더密着시키고 東歐에 대한 소련支配權을 보다 공고히해주게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않는다고 본는것이다。이것이 西獨측의「制裁」조치에 대한「通譯」이다。

그러면서 얄타體制란 이름이붙은 東西 兩陣營의 版圖를 위협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소련에대한 더 큰 制裁가 폴란드에 과연 實이 되지 않이될지 선뜻 판가름을 못하는것이 오늘의 국제사회의 現實政治이다。

뉴—서울

이 상 배

—서울 미조리 화식부 4년
—서울 일력 화식부 5년
—서울 프라자호텔 화식부 4년
—조선호텔 화식부 5년
—국제호텔 화식부 주방장 재직중
캐나다 뉴서울에 취업이민

※스시바 써비스 오후6시~새벽1시까지

★음식맛이 좋아졌읍니다.

★서울에서 일류요리사 고용

☆국수계의 일류요리사 전 서울집 **정현기**씨 뉴서울로 오다.

529 BLOOR ST. W.

533—1500

✣오리엔탈 EXPRESS
(주7일공연)

매 일—오후8：30~새벽1시
일요일—오후8：00~오후11시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㊳

해밀턴의 자랑스런 追憶

가슴에 H字…蹴球部 매니저로

모든 미국대학은 시즌경기에 강하다. 가을에 축구, 겨울에 농구, 봄에는 야구경기가 전통적으로 벌어진다.

테니스도 많이 하지만 시즌경기라기보다 4계절 골고루 즐긴다고 말할 수 있다.

축구는 물론 미식축구다. 나는 대학시절 에이스 스포츠맨은 못됐지만 미식축구 멤버였다. 서울외국인학교때는 빙구선수로, 고등학교때는 사격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서울·平壤외국인학교 대항전때는 그야말로 서투른 선수였으나 고교시절의 사격만은 제법 수준급에 속했다.

그때는 학교지하실에 사격장이 마련돼있어 라이플·클럽에서 연습을 많이 했고 전국사격협회가 주최하는 시합에서 우수사격 메달을 탄 일도 있다.

그러나 대학시절 미식축구의 솜씨는 그야말로 아마추어경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연습은 열심히 했지만 실력이 늘지않았다.

그런데도 운이좋아 3학년때 미식축구팀의 매니저로 뽑혔다. 한국어로는 총무라는 말이 적당할지 모른다.

시즌경기에서 이긴 해는 학교측이 해밀턴의 첫글자인 H字가 큼직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만들어 주었다. 선수는 아니지만 매니저에게도 이 유니폼이 배당돼 순아마추어로서는 상당한 영광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지금도 미식축구선수로서보다 매니저로서 얻은 H字가 새겨진 유니폼을 더 자랑으로 삼는다.

해밀턴대학의 자랑가운데 합창단을 제일먼저 들지않을 수 없다. 내가 다닐때는 남학생뿐이라 합창단은 남학생으로만 구성됐는데 해마다 학년대항 합창경연을 벌였다. 합창경연은 따뜻한봄날저녁에 열렸다. 내가 소속됐던 학년은 3학년때까지 연3년 우승을 차지했다.

◇대학캠퍼스에 세워진 해밀턴동상과 남성합창경연이 열릴때의 모습。

우리學年合唱團은 더욱有名…競演서 3년우승차지

4학년때도 누가보나 우승하기에 손색이 없는것 같았다. 그런데 결과는 우승이 아니었다. 너무 화려하다는것이 흠으로 지적됐다. 남녀혼성도 아닌 합창단이 어떻게 화려할수 있는지 그이유를 확실히 모르겠다.

해밀턴대학의 추억가운데는 논쟁반(Debating Team)을 빼놓을수 없다. 양팀이 논쟁을벌인다음 어느 팀이 옳고 논리가 정연한지 강평을 듣게돼 있었다.

논쟁반에서 얻은 경험이 그뒤 사회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논쟁반에서는 신입회원에게 What do you have the time 하고 대답하기곤란한 질문을던진다. 「가지고 있는 시계의 종류가 무엇이냐」는뜻도 되고 「지금 몇시냐」는물음으로 해석할수도 있다.

이질문에는 「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은 말할수 없는데요」하고 두가지 뜻을 다 포괄해서 대답해야 명답이 된다.

대답을 잘못할 경우 대학촌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산동네까지 다녀오라」 또는 「여자의 옷 몇점을 모아오라」, 「최소한 50명에게서 시간을 물어보라」, 「체육관에서 쓰고있는 유리잔이 몇개인지 알아보라」는등의 고약한 벌이 가해진다.

어려운 벌중의 하나는 「여자옷을 모아오라」는 것이다. 지금은 남녀공학이지만 그때는 가장 가까운 여자대학도 80㎞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해결방안을 세웠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母性愛」란 男性이만들어낸 개념

프랑스 哲學者·心理學者 바뎅테르女史 주장

18세기때는 乳母에 맡기고 生母는 育兒에 거의 無關心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子女虐待 훨씬많은 佛現實 例示
「本能的」「先天的」 아니라고

▲▲▲▲▲▲

여성을 가장 아름답고 성스럽게 표현한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母性愛라할 수있다. 그런데 이 모성애라는것이 본능적인것이아니라 남성이 여성들을 묶어두기위해 지어낸 개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이런 폭탄선언을 내놓은것은 프랑스의 철학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엘리자베트·바뎅테르여사. 현재 프랑스법무상인 로베르·바뎅테르의 아내이며 세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최근 「母性愛」라는 저서를 펴냈다.

▼▼▼▼▼▼

이 책은 18세기의 육아실태로부터 시작된다. 그당시중산층이나 귀족집안의 어린아기들은 출산직후부터 엄마의 곁을 떠나 유모의 손에서 자랐으며 대부분 빈농집안의 아낙네들인 유모들은 젖이 중요한 수입원이었기때문에 자신의 애들에게는 젖을 제대로 먹일수없었다.

그렇다고 유모의손에 자란 귀족층 아이들이 충분히 젖을 먹을수있었던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이 자란 환경도 별로 쾌적한것이 아니었다.

유모들이 아기를 포대에 돌돌 말아서 한쪽에 팽개쳐두는일이 많아 아기들은 온종일 대소변속에 누워있기도했다. 집안에 사나운개가 있으면 유모들은 「아기보따리」를 높은 장대위에 걸어놓기까지했는데 그것은 아기들의 혈액순환에 극히 해로운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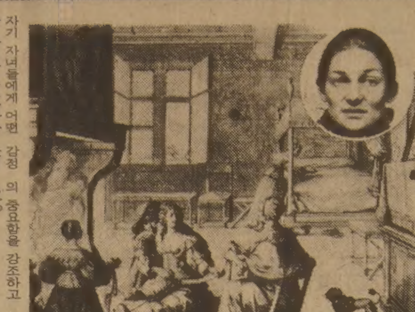
그러나 어머니들은 이를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사교와 여러가지 문화생활로 바빴다.

바뎅테르여사가 이런 사실을 공표한것은 당시의 어머니들을 비난하기위해서가 아니다.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있는 「母性本能」이라는것이 실은 남성들의 조작이라는것을 보여주려는것이다. 17~18세기의 프랑스에서 어머니들이 육아에 소홀할수있었던것은 당시의 사회풍조가 아버지를 존중한데비해 어린애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런 육아풍조로 당시 도외에서의 유아사망률은 50%를 넘어 결과적으로 산아제한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후에도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된것은 아니었다. 유모의 양육이 끝나자마자 가정교사들이 이들을 떠맡거나 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감금」되기 일쑤였다.

정치가이자 대주교였던 탈레이랑(나폴레옹시절의 外相)의 어린시절은 18세기중엽 귀족집안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8세기의 유모들이 아이를 기르는 모습。(원내는 엘리자베트·바뎅테르 女史)

그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유모의 양육을 받았다. 어머니가 그를 찾아본것은 그가 5살때 뿐이 갑자기 죽는바람에 그에게 長子상속권을 줄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였다.

탈레이랑은 유모가 기를때 낙상을 입어 안짱다리가 됐었는데그의어머니는그때까지이사실조차모르고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병신임을알게되자 상속권을 그의 동생에게 주어버렸다.

바뎅테르여사는 이런 실례를통해 「자식에대한 사랑은 어머니쪽이 훨씬 강하며 그것은 본능적인것」이란 통념이 남성들의 조작이라고 말하고있다.

탈레이랑식의 육아풍조가 바뀌게된것은 1760년대부터였다. 계몽주의 사상가인 장자크·루소와 그의 저술「에밀」이 어린이와 育兒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부터였다. 루소는 男女평등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여성의 가장신성한 의무는 남자가 어렸을때는 길러주고 그들이 성장하면 「자문」해주고 「위로」해주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기를 기르는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유모들에게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싹텄다.

여기에는 당시의 인구정책도 가세했다. 절대군주체제가 이룩됨에 따라 군사적·경제적수요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인구증가를필요로했다.

그러나 「母性愛」가 이론으로 체계화된것은 지그문트·프로이트에 의해서였다.

그는 『좋은 어머니가 될수없는 여성은 사악하거나 병든 여성』이라는 식의 女性心理分析을 발표함으로써 여성들이 꼼짝못하고 모성애를 발휘하도록 옭아맸다. 그바람에 「여성해방의 세기」라는 20세기의 여성들은 전례없이 불안과 중압감에시달리고 있다고 바뎅테르여사는 지적했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여러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하고있지만 「본능적이고 선천적이며 고갈되지않는 母性愛」의 이론은 여전히 위력을 보이고 있다.

바뎅테르여사는 수백만명의 여성들이 과중한 모성애의 부담으로 병적인 절망감이나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성애가 천부적인것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오늘날 프랑스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자녀를 학대하는경우가 몇배나 많음을 상기시켰다.

비슷한 케이스로 최근「F」라는 전위적인 여성잡지의 여론조사를 들수있다.

1만8천명의 여성독자들에게 『어린애를 갖지않으려는 여성은 뭔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이제 「母性愛」라는 관념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슈피겔誌에서】

海外女性

男女平等法 修正案위해 美여성기구 막바지攻勢

6月30日까지 38개州 支持확보해야

지난 10년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못했던 美國의 여성운동은 오는6월30일 남녀평등권수정안(ERA)의 비준마감일을 앞두고 가두 서명운동에 나서는등 마지막 전면공세에 들어갔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全美여성기구(NOW)와 女權운동가들은 평등권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38개州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평등권수정안은 1972년 의회에 제출되어 그동안 35개州의 지지를 얻었으나 비준 최종기일인 79년까지 의회 통과에 필요한 38개州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의회는 데드라인을 82년6월까지 3년 연장한다는 법안을 가결했었다. 따라서 오는 6월말까지 3개州의 지지를더얻지 못하면 이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만다.

女權운동가들의 최대 이슈는 성경구절에 근거, 男女평등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정통파 그리스도敎와 모르몬敎등 지극히 보수적인 무시못할 종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한편 레이건 大統領도 이 법안통과에 그다지 열성적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여름 男女평등권 수정안통과를 위한 데모를벌이고있는 미국여성들。

79년 첫마감때는 3개州 모자라 延期
12萬 운동가들 街頭서명운동
保守系 지지힘들고 레이건도 無關心

우먼 리브가 절정에 이르렀던 1960년대에 女權운동가들은 공동집회에서 브래지어를 불태우고 「미스」나 「미세스」대신 「미즈」를 사용하는등 많은 美國人들에게 성차별과 불평등에대한 의식을 주지시켰고, 지금도 보험·연금등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가정주부·과부·이혼녀등에게 많은문제가 남아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뉴저지州 공화당 여성의원인 밀리센·펜윅女史는 美國의 일부 州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습 즉 과부에게 가장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지않고 시동생(비록 그가 전과자나 알콜중독자라 할지라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등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女權운동가들이 쟁취해야할 또 하나의 분야는 낙태문제다.

대부분의 女權운동가들은 지금과같은 여성운동이 제대로 성과를거두려면 금년에 있을 상·하원선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NOW회장 엘리노·스멜女史는 작년9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대규모대회에서 행정부의 경제계획에 반대하는 연설을했으며 이자리엔 민주당주요인사를 비롯, 무역노조지도자및 기타인사들 25만명이 운집했었다.

스멜女史는 지금 12만5천명의 열성 여권운동가들이 남녀동등에 반대하는 입후보자들의 리스트를 작성중이라고 밝히면서 ERA비준마감일인 6월30일까지 최선을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ERA가 대부분의 女權운동가와 女性들의 바람대로 만기일을 넘기기전에 통과될는지는 두고봐야 알일이며 현재로서는모든것이 순탄치않은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워싱턴WP=聯合】

한국일보 詩壇

수평선으로 가요

王秀英

배를 타지말고
두둥실 구름으로 뭉쳐
수평선으로 가요

육신을 벗어던지고
훨훨 날아간 사람들
따라 우리도 그렇게
떠나가요

하늘과 맞닿는 곳
거기부터 또 다시
저만큼 멀어지는
수평선으로 가요

깨끗한 혼들끼리
불새되어 어울리는
황혼 길목은 넓은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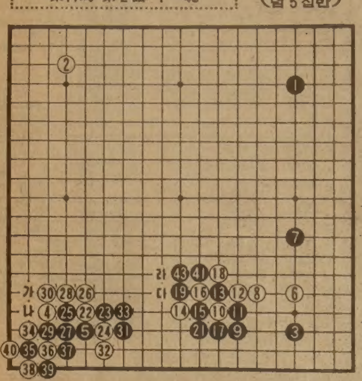
우리의 눈물이
서로 엉켜 출렁이는
사이좋은 몸부림
위 파도에 부서지며

사랑도 고뇌도
씻기우는 햇살속
바다 끝 가장 끄트머리
수평선으로 배를 타지말고
죽어서 죽어서 가요

【在日詩人】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 第2譜 1~43 (각5시간 덤5집반)



白(5段) 張秀英〈3勝〉
黑(6段) 徐能旭〈3敗〉

張5단은 대체로 초반에 온건하게 두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적극전법을 시도한다. 당초 하변을 白10으로 써운것도 그러려니와 좌하귀를 白22로 뛰어붙인 수도 역시 마찬가지.

22로 28자리에 모해두면 온건하지만 순간적취향으로 22에서 24로 젖어한파란 일으키고 싶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선제공격. 상대가 워낙 전투에능한 棋風인지라 차라리 자기쪽에서 싸움을 걸어본 것으로 생각된다.

固所願이나不敢請。 문득 이런말이 생각날정도로 徐6단은 지체없이 黑25쪽을 물고 29까지 귀에 파고 들었다.

이때 白30으로 꽉 이은 수가 국후에 약간의문제를 빚어냈다. 30은「가」의 곳을 호구로 잇고 黑「나」로 물때 白30으로 잇는것이 유리했다는 것이다.

黑 기민한 變身

하기야 張5단은 다음에 白34, 36의 패를노리겠다하여 일단 꽉 이어두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제나 그렇듯, 실전에 임하고있는 본인의 생각을 국후에 왈가왈부하기도 거북한 일이다. 하지만 어느 국부에서 결과가 좋지않을 경우는 역시 객관적인 중론이 타당성을 띠게 마련이다.

지금의 경우도 『白30에 앞서 下中央을 白43으로 젖어붙아 黑「다」白「라」를 선수한 다음에 34, 36을 결행하는 편이 유리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본보는 白40까지 상용수법으로 귀에 이단패가 나기는했으나 黑이 재빠르게 41, 43을 선수하여 변화를 피한 수단이 호착이어서 張5단은 불만이 대단한듯, 사뭇 무엇인가 혼자 뇌우치고 있었다. 20…10。 42…13。【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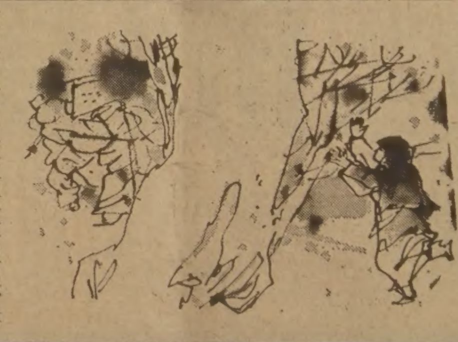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⑨

할머니는 그 노리개들을 수지의 옆섶에달아주면서 느이 고모 돌때 달아주었던 거란 감상 어린 말을 부언했지만 수지가 돌때일을 기억하고있을 리는 만무였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의 한씨댁 역시 대수롭지않은 물건도 유래를 따져 소중히 간직할만큼 섬세한성품은못 되었다. 아무렇게나 굴러서 다없어지고 은표주박 하나가 경대서랍에 굴러다니던 걸 수지가 소꿉장난 할때 가지고 놀게 되었다. 수지 역시 피난길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다닌건 그것이 무슨 보물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목이가그것을 몹시 갖고싶어했기 때문이었다. 그 은표주박은 오목이가 먹을거 외에 탐낸 단 하나의 것이었고, 수지가 오목이에게 끝내 양보하지않은 단 하나의 것이었다.

실상 일곱살이란 나이는 어른도 먹을것이라면 덮어놓고 치사스러워질수밖에 없는 난리통에 두살터울 밖에 안되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모조리 양보하고 의젓하기엔 가당치도 않은 나이였다. 겉으로 착한 언니 노릇을 제아무리 훌륭하게 연기했다고 해도 속으로 상처까지 없을수 없었다. 수지는 오목이가 먹을 것 외에 갖고싶어하는 단 하나의 것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상처를 달래려 들었다.

수지가 그것만은 내주지않을 거라는게 너무도 확실하기때문에 오목이도 그것을갖고싶은 것만은 잘 참아냈다. 참을수록 그건 대단한 보물이 돼갔다. 두계집애의 미묘한 갈등이 꼭 은행알만한 은표주박에게 값으로 따질수없는 진귀한 보물노릇을 시키고있었다. 오목이는 그걸 한번 만져보는 꿈을 자주 꾸었고 수지는 그걸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오목이에게 길몽이 수지에겐 흉몽이었다.



그 대단한 은표주박 노리개를 꺼내보는 수지의얼굴에 마음이 얼음장같은 어른의미소가 감돌았다. 그게 보물이 아니란 극비(極秘)를 실은 진작부터 알고있었다는듯이 노련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먹을것을 빼앗길 때같은 애처로운 체념과 언니다운 양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착하디 착한 얼굴로 그것을 오목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너 가져』

오목이는 와락같이 휘어잡았던 언니의 옷자락을 스르르 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받았다. 그게 뭐라는걸 확인하자 그걸 가지라는 말이 믿기지않아 언니를 쳐다보았다.

『언니야, 뭐라구?』

『너 가지라니까』

『정말?』

오목이는 그꿈같은 사실에 도취해서 청홍의 칠보무늬가 신비하게 반짝이는 은표주박을 두손으로 애무했다. 오목이의 조목한 예쁜얼굴이 기쁨으로 빛난다.

마지막 피난민의 물결이 격랑처럼드센 국도 한가운데에서의 일이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오목이의 손목을 놓쳤다. 혼자가된 수지는 허둥지둥 사람사이에 휩싸여 오목이로부터 멀어졌다. 너무 서둘다가 하마터면 고꾸라져서 어른들의 발길에 짓밟힐뻔 하기도했다.

동생의 손목을 놓치고 따로따로가 된지 얼마만인지 문득 수지는 동생을 부르기 시작했다.

『수인아, 수인아』

이미 동생과는 멀어질대로 멀어진 뒤였지만 동생이 가까이에 있대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수인은 동생의 본명이었지만 호적에만 그렇게 올랐을뿐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으로 동생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 保險業界資産 2조2천1백억원

지난 한햇동안 보험업계자산이 38.8%나 늘어 2조원을 넘어섰다.

22일 韓國保險公社가 집계한 81년말현재 보험업계 자산은 生命保險업계 1조4천5백10억원, 損害保險업계 7천6백54억원등 총 2조2천1백64억원으로 80년 말보다 6천1백97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운용자산은 生保 1조3천8백42억원, 損保 4천5백31억원등 1조8천3백73억원으로 80년말의 1조2천9백41억원에서 42%가 증가했으며 총자산에 대한 점유율도 81%에서 82.9%로 늘어났다.

운용자산은 대부금 42.1%, 유가증권 22.7%, 부동산 10.9%, 現預金 7.2%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신장률은 現預金이 53.1%, 부동산 48.8%, 대부금 46.4%, 유가증권 29%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銀行利用度 높이게 金融團서 弘報活動

금융단은 은행이용도를 높이기위한전국규모의대대적인 홍보활동을전개하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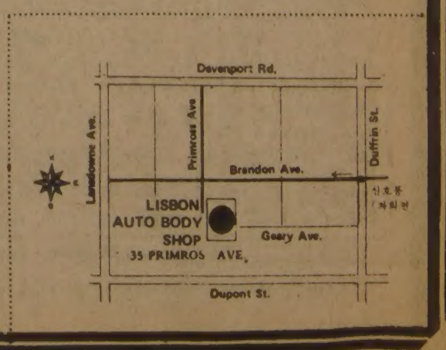
謹賀新年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學術

한스·큉 서울에온다

충격과物議의 세계적神學者

18일 明洞성당서 강연

책을 낼때마다 학계와 종교계에 충격과 물의를 던져온 세계적 신학자 한스·큉교수(54)가 한국을 찾아온다。소속은 가톨릭이지만 교회일치운동에 관한 그의역할로 프로테스탄트에서도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敎權당국과의 갈등끝에 로마 교황청으로 부터 「조치」를 받은것으로 유명한 큉교수는 현재 독일튀빙겐대학의 교의신학 교수이자 교회일치연구소소장。그는 최근 미국 시카고대학에서의 특별강좌를 마치고귀국길에 『한국교회 관계자들과 사귀고싶다』는 뜻을 실현하기위해 오는 17일 낮12시40분 KAL편으로 서울에 도착한다。

한스·큉 교수는 2박3일의 짧은 방한일정가운데 18일하오 6시부터 明洞성당 사도회관에서 강연을 하게된다。연제는 『현대인은 과연 무엇을 믿을수 있는가?』。강연에 이어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이른바「한스·큉사건」은지난 79년 12월15일에 있었던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의 조치로 그절정에 올랐었다。교황청당국은그때 큉교수의「교회로부터 授任된神學교수직」을 박탈했던 것이다。

그조치에따라 큉교수는 가톨릭신자이자 神父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계속보유하나 신학대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못하게되었다。

이같은 조치내용이 보도되자 「한스·큉사건」은 학계에서 뿐만아니라 일반에게도 공공연한 논란의대상이 되어왔다。歐美신문들은 여러면에걸쳐 독자들의 투고를 싣는가하면 교회단체들은 그들대로 논평과 공개성명을 발표하고 신학자들간에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스·큉교수의 저서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세속안에서의자유」등두권의번역본을 내놓은바있는 분도출판사 편집장 鄭漢敎씨는 『이들 열띤 토론의 내용 자체도 물론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만 우선 이런 토론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서도 우리시대의 종교문제에 대한관심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17일 來韓하는 세계적 신학자 한스·큉교수。

"恩寵論、新·舊敎 차이없다" 敎會一致운동 개척에 앞장

한스·큉은1928년 스위스의 중부 수르세에서태어났다。로마에 있는 교황청산하의그레고리아나 대학교에서 수학、그의 나이 26세에 사제로 서품되었다。그후 파리에서 엄맞동안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어서 2년간 루체른주교좌 성당에서 보좌신부로 있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인「칼·바르트학설과 신학적 인식」은교회일치운동을 위한 개척자적인 저술로 출판되자 즉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궁극적으로 은총론에 있어서는 가톨릭의 가르침과 복음주의개신교의 가르침 사이에 아무런 대립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이논문의 내용이기때문이다。

한스·큉은 뮌스터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한 다음 32세의 약관으로 튀빙겐 대학교로 옮겨 오늘에 이르렀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때는 공의회 신학자로 교황 요한23세에의해 지명돼 크게활약했었다。

이 공의회에서 그는 칼·라너、이브·콩가르、앙리·드뤼박등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가톨릭교회의 쇄신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특히 한스·큉의 저서 「교회의 구조」와「공의회에서의 교회」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7년에 첫 물의를일으킨「교회론」(축소판인「교회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도 나와있다)이、1970년에는 교황의 이른바 無謬性에대해문제를 제기한「無謬性?—問題提起」가 나왔다。

교황無謬性에 問題제기…波紋

歐美언론·敎界 열띤論爭불러

이들 저서는 흔히들 설명하고있듯이 교황의 無謬性교의를 전적으로 부정한것은 결코아니었으며 그의 말대로「문제를 제기」한것이었다。그러나 이저서의 파문은 크게번져 학문적인 차원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1974년 한스·큉 교수는 보다 광범한 일반독자층을 상대로 「크리스천實存」을 출간했다。그의 基督論이 표명된 이 저서는 신학자의 저서로는 획기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발타사르、라너、카스퍼、다이슬러등 당대의 신학자들이 「한스·큉의 크리스천實存에 관한 토론」을 책으로 엮어낼 만큼 큰 반향을 불러모았다。

이런책들이 나오는 사이에 無謬性교리와 基督論에 관한 신학자들의 논쟁은 계속됐고 교권당국에의한 「한스·큉사건」은 이때 일어났다고볼수있다。

로마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이 발표한 그의 신학교수직상실이유인즉「기대했던 견해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스·큉교수는 비단「사건」때문이아니라도 그가 연속적으로 내놓고있는 획기적인 저서들로서、세계적神學誌「콘칠리움」의 주요필자로서、또 튀빙겐대학교 교회일치연구소 창설자로서 우리시대의 가장 탁월한 인물들가운데 한사람인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현대의 그리스도교가 당면한 문제들을 가장 진지하게 사색하고 파고든 인물이라는점에서 그의 방한의 뜻은 크다고 할수있다。

그의 정직한 학자적태도、해박한 문화이해、교회일치에대한 열의、그리스도복음을 현대인에게 이해시키려는 열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특히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솔직한 물음에서 시작하여「참으로 사람이고자」라는 엄숙한 대답에 이르는 그의 저서「크리스천實存」은 현대인을위한 하나의 信仰大全이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李忠雨기자】

올림픽의 또다른 얼굴 그래픽·디자인

88년 서울대회 앞두고 부푼期待

마스코트·포스터·기념鑄貨·유니폼圖案등 수두룩

強한이미지·創意性보여줘야

88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되자 체육계에 못지않게 흥분한것이 그래픽·디자인계。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의 심벌·마크로 결정된「움직이는 별」。

지금까지 「그래픽·디자인」「시각디자인」「상업미술」「도안」등 용어마저통일되지 않은채 일반인들의 관심권밖에 머물던 이 응용미술계는 올림픽의 한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올림픽은 그래픽·디자인으로 시작해서 그래픽·디자인으로 끝난다。올림픽유치를 바라는 국가들은 유치신청을 위해 유치심벌부터 만들어야한다。유치심벌은 본대회의 심벌마크로도 사용될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그 나라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나타내야 한다。

유치가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최준비에 들어가면 올림픽은 마치 그래픽·디자이너들의 행사같이된다。우리가 흔히 볼수있는 올림픽·마스코트와 심벌마크를 제정해야하고 포스터를 제정해야 한다。심벌은 경기장、기념주화、메달、유니폼및 각종 서식에 사용되는것이며 포스터는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나뉘어 수십종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국내의 그래픽·디자인계는 올림픽개최가 발표되자 어떻게 임무를 떠맡을것인가로 걱정과 기쁨이 교차된 표정이다。

학연을 초월한 그래픽·디자이너들의 모임인 韓國視覺디자인협회(회장 權明光)는 지난해 협회보에서 특집좌담을 갖고 디자인업계가 해야할 업무의 윤곽을 살폈다。뒤이어 국내유일의 디자인잡지인「종합디자인」은 최근 발행된 11·12합병호를 아예「올림픽특집호」로 내놨다。

이 잡지는 맨앞에「88올림픽·이미지를 어떻게 경영할것인가」라는 좌담회를 싣고 전반적인 윤곽을 다진다음「바람직한방향을 모색해본다」는 기획으로 그래픽·디자인계가 해야할일들을 부문별로 검토하고있다。맨뒤에는 東京올림픽이후의 올림픽들을 디자인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1972년의 뮌헨·올림픽때 제작된 포스터로 입체파의 기법을 보여주고있다。

올림픽대회에서 필요한 디자인항목은 크게 ▲관리행정용품▲통신·전달관계물▲진행관계및 기타로 대분할수있다。

행정용품으로는 초청장、신분증、서식류、포스터、전시회목록、행사일정표등인데 심지어 각종의 문구류도 안이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통신·전달 관계물로는 속보신문、올림픽통신지、서울안내잡지、전종목에관한 안내장、각종팸플리트、올림픽·캘린더、공식안내장、상장、행사안내장등은 물론 주차허가증과 각종서비스장소 표지도 디자인효과를 살려야 한다。

이밖에 기념배지、메달、단추、올림픽주화등은 1회용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길이 보존하는 88올림픽의 이미지로서 극히 중요한항목을 이룬다。

이중 올림픽주화는 1952년의 헬싱키·올림픽에서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1976년의 몬트리올·올림픽때부터는 액면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발행하기 시작했다。1980년의 모스크바·올림픽때는 무려 45종의 기념주화를발행하여 큰 소득을올렸다。

기념주화는 올림픽이 열리기전에 발행하는것이 통례로 소련은 3년전인77년부터 발매했었다。

이 기념주화는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도 번졌으며 갈수록 소재、도안、종류등이 대형화및 다양화하고있어 우리는 올림픽이전에 아시안 게임 개최국으로서도 서둘러야할 항목인 셈이다。

진행관계용품으로는 참가자명단、기록표、기록보도、선수촌포스터、선수촌표지、선수촌식당의식권、메뉴등과 각종유니폼이있다。

유니폼에는 안내원복、한국선수단유니폼、KOC임원복、기술관계요원복、기록심사원복、메달수여자복、보조원복、계시원복에서 심지어 경비원과 시설관리인의 유니폼등 이루열거할수없다。

이밖에 선수촌의 가구와 실외용품、우편차와 스낵바등도 세련된 디자이너의 도안에따라 만들어야한다。

또한 각도시의 경기장이나 공항표지등과 도로표지및 지하철표지도 문자를모르는 외국인들이 쉽게 식별할수있는 시각적인 도안을 걸어야한다。

이에따라 각 경기장이나 시합표지는 운동종목에 따른 특성을 간단하고 명확하면서도 재치있는 도안을 개발해야한다。

이런것들이 올림픽준비위원회의 소관이라면 올림픽기간중의 상품 특히 민예품의 도안은 민간차원의 작업이다。그러나 그 중요성은 공식적인것에 결코 지지않는다。

◇1964년의 東京올림픽때 사용된 이 심벌·마크는 너무 일본색을 풍겨 비난을 받기도했다。

◇1976년의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사용된 심벌·마크

관광상품은 우선 품질면에서 절대적인 우수성이 보장되도록 당국이 조치를취해야할것이지만 디자인의 우수성은 오직 우리 디자인계의 창의성에 달려있다。상품디자인은 올림픽개최와 관계없이 우리 무역의 신장을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낙후된 부문이다。

디자인이 올림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東京올림픽에서 잘 드러났다。일본은 올림픽을 4년 앞둔 1960년 평론가、아트·디렉터、디자이너등으로 구성된「디자인간담회」를설치하여 東京대회마크에대한 심의를 했다。이 간담회는 6명의 디자이너를 지명했고 이들이제출한 40점의 작품을 심사하여 가메꾸라·유사꾸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간담회는 그후에도 대회관계인쇄물과 사용될 書體、입장권、포스터、메달등도 계속 심의했다。

協會특별좌담·專門誌에서는 특집도 꾸며

"네온사인復活…세련된美學 과시할기회로"

◇1968년 멕시코·올림픽의 심벌·마크는 인디언풍의 미술을 바탕으로한 선의 확장기법을 사용했다。

당시 디자인계는 올림픽이 젊은이들의 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젊은이들의 의견을 많이반영한것은 흥미있는일이다。

西獨의 경우 1972년의 뮌헨·올림픽을 6년앞둔 1966년에 디자인제작과 각부문의 디자인들을 조정히기위한 사무국을 조직했다。

「종합디자인」誌는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떠나 에너지파동으로 73년이후 사라진 네온사인의 부활도 주장하고있다。

세계에서 네온사인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스리랑카뿐이어서 외국인의 눈에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없다는것이 그요지다。

한때 일본이 에너지절약을위해 3개월간 네온을금해놓고보니 외국관광객들이 돈을 쓰지않았는데 우리나라도 네온사인을 허용하면 관광객들이 훨씬 많은 돈을 쓰고갈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 잡지는 네온사인의 기술적개발도 서둘러야 올림픽때 세련된 네온사인의 미학을 보여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것은 통금해제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88올림픽까지 6년、아시안·게임까지 4년을 남긴 이 싯점이고보면 디자인계의 이런「자각」마저 때늦은것은 아닐지…。【梁平기자】

美術

女流조각가會 첫 海外展

내일부터 파리한국문화원

한국여류조각가회(회장 金貞淑)가 창립9년만에 첫해외전시회를 15일부터 31일까지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갖는다。

약60여명의 회원중 30명이 50점을 출품한 이 전시회는 소재와 형태가 다양하여 한국조각의 한 면모를 보여주게될것으로 보인다。

작품들은 대부분 브론즈로 된 여인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비구상과 테라코타및 목조도 상당수가 포함돼있다。

臺灣사진학회會長 郎靜山옹 寫眞展

臺灣사진학회회장 郎靜山옹(90)의 사진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국내작가 金一昌、姜衛遠、金東准、劉藏展씨의 4인전과 합동으로 열리게된다。

寫歷70년의 郎옹은 사진작가이자 저술가이며 美·中文化및經濟協會회장으로도 활약하는 臺灣문화계의 원로。

現代美術 摸索展

韓國現代美術摸索展이 31일까지 海影화랑에서 열리고있다。

전위작가들이 주류를 이룬 이 전시회는 「인간과 실현」「방법과 실천」「色의 전개」등으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방법과 실천」에는 姜貞憲、郭正一、李榮등 20명이、色의 전개에는 李鈞과 李和容등 9명이 참가하고있다。

馬順玉 개인전

동화적인 소재를 즐겨다루는 여류화가 馬順玉씨가 17일까지 그로리치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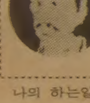
弘大美大출신의 馬씨는 1979년에도 도시문명에 찌들려 활력을잃은 도시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번전시회에서는 시골어린이들의 생활과 모습을 향수어린 터치로 보여준다。

李太浩 탈作品展

탈의제작에 30년간 종사해온 李太浩씨(50)가 20일부터 24일까지 롯데백화점5층화랑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人生名言

내가 하는 일에 後悔란 없다



日本의 劍客, 二刀流의 開祖。劍뿐아니라 그림에도 뛰어나 宋元畵의 減筆法을 배워 이를 기초로 水墨畵를 즐겨그렸다。또 書와 金工에도 재주가있었다。吉川英治의 小說로 널리 알려짐。兵法에 관한「五輪書」등이 있다。

나의 하는일에 後悔란 없다。

× × ×

宮本武藏(미야모도·무사시)의「獨行道」

宮本武藏 〈1584~1645〉

1條。이는 물론 하나의逆說로, 나는 항상愼重히 바르게 행동해왔으므로 세상사람들처럼 後悔같은것은 않는다—이런 천박한 뜻이 아니다。

요즘말로하면 自己批判이나 自己淸算같은건 모두 거짓부렁이다—이런뜻이다。

그와같은 方法으론 참된 自己를 알수없다。그런 않은피론, 오히려 자기기만으로 誤導될뿐이라는것。

어제일을 後悔하고 싶거든 後悔하라。언젠가는 오늘일을 後悔하지 않으면 안될 내일이 찾아올것이다。

그날 그날의 自己批判으로 지새는 그런길을 어디까지 걸어봐도 批判하는 主體의 모습과 만나기는 어렵다。딴 길이 반드시있다。

自己라고하는 本體와 만나는길이 곧있다。後悔같은은 얄팍한 手段으로, 자기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해보라。

이와같은 確信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오늘까지 자기가 살아온것에대해, 그뭣과도 바꿀수없는 목숨의 持續感이란 것을 가져라, 이런 뜻이될것이다。거기 行爲의「진수」가 있는것이지, 後悔같은건 앞서도 뒤서도 별것은 못된다。그와같은「참뜻」에 통달치 못하면 事前의 豫想도 事後의 反省도 그림자와 노니는것과 같을 뿐이다。

行爲는 서로다르지만 거기 건 목숨은 어느때나 똑같다。그런 참 모습을 行爲의 緊張感속에서 悟得해야한다— 이것이 저 逆說이 말하고자하는 武藏의 自己認識이라 할수있다。

그는 妻子도 없고 仕官도 않은채 거의生涯를 流浪속에 지냈다。

그의 생애엔 華麗한것도 劇的인것도 없었다。그는 소위 英雄도 豪傑도 아니다。단한번의 실수도 없었다는 20代까지의 60여회의 決鬪, 이것만이라면 별것이 못된다。

그가 훌륭한것은 通念化된 敎養의 힘을빌지않고 자기靑年期의 경험에서 직접 어떤 普遍的인 思想을 독특한 연구법으로 얻어냈다는데있다。그의 孤獨도 不遇도 아마 이어쩔수없는 그 思想의 참신함에서 온것일 듯싶다。

流星의 賦 〈282〉

李炳注作 李友範畵

風雅와 策謀 ⑬

『청하배를 할 순 없다』

는 계남의 일갈에 주변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다。뒤에서 부복해 있던 히라또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계남에게 매달렸다。

『홍공、이래선 안됩니다。내 목이 달아날판입니다』

하고 애원했다。

당상에 여원 몸집으로 각박한 표정을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는데、그 사나이가 좌우에 묻는 모양이었다。그자를 시중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말이 있었다。

『어떤 영문인가』

계남 옆에 시립하고 있던 무사가 히라또의 말을 옮겼다。

『조선에서 온 이 사신은 각하에게 청하배를 못하겠다고 하옵니다』

그러자 여윈 몸집의 사나이가 물었다。

『내가 누구란는 것을 그자가 알고 하는 짓인가』

『관직 여하를 고사하고 국왕을 대표한 자기로선 청하배할수 없다고 하옵니다』

하는 통사의 말이 있었다。

『목이 달아나도 할수 없는지 물어봐라』

그쪽 일어는 해득할수 있는 계남이 조선말로 크게외쳤다。

『예에 어긋나는 짓은 하늘이 무너져도 할수가 없다。귀하의 관직은 귀국의 관직이니 내가 알바 아니다』

히라또가 사색이 되어 이를 통역했다。

여윈 몸집의 사나이는 그의 풍채엔 어울리지 않는 큰소리를 내어 웃으며

『그 기백 장하다고 할수 있소。이리로 모시도록 하라』

고 했다。

계남이 당상에 올랐다。

대등하게 자리를 차리고 서로 절하곤 계남이 자기이름을 댔다。

『나는 조선국 통신사직 군관 홍계남이오』

『나는 정이위 다이나곤(正二位大納言) 히데쓰구(秀次)라고하오』

하는 인사가 있었다。

「다이나곤」이란 이왕조의 벼슬에 비기면 좌우의정(左右議政)에 해당하는 벼슬이다。정이위(正二位)이면 곧 바로 정이품(正二品)과통한다。그러나 그러한 관직에 앞도당할 계남은 아니다。

히데쓰구는

『홍공의 무예가 출중하다고 듣고 그 고안을 뵙고자 오늘 초청한 것인데 부하들의 천려(淺慮)로 실례가 있었던것 같다』

며 정중히 사과했다。

이 히데쓰구는 무인(武人)이면서도 학문을 숭상하는 일면을 보일 참이었는지 조선의 학사(學事)를 물었다。

계남은

『나는 무인이지만 소시부터 율곡문하(栗谷門下)에서 배웠읍니다』

하고 율곡의 학설을 대강 소개했다。

히데쓰구의 옆에 앉았던 노인이

『율곡선생과 퇴계선생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계남은

『밤나무와 잣나무는 각각의 특생으로서 정정한 법이매 그 비교는 가당치 않은 것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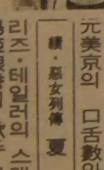
며 우열논의를 피해버렸다。

『그렇소。홍공의 말씀이 옳소。밤나무는 밤나무、잣나무는 잣나무니 어떻게 비교할수가 있겠소』

하고 히데쓰구는 사뭇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17일자
주간女性
도버橫斷 꼭「신기록」세우겠다 —趙五連 선수의 스위트홈 新春특별 탐방
悲運의 가수 河秀英의 생애
행정고시 合格한 張玉珠양
元美京의 口舌數와 속事情
續·慕女列傳 夏姬편
리즈·테일러의 스캔들 傳記
楊姬銀양의 歌手데뷔 秘話
女子농구界 트로이카 등장
새해 文壇 뒤흔든 新春文藝 우먼파워 詳報
맞선 1백번만에 仙女같은 愛人얻은 高榮秀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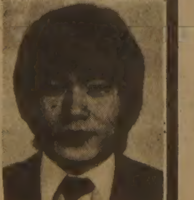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초보자 YMCA스키강습
때 : 1982년 1월30일(토)
오전8 : 15~오후5 : 30
행선지 : Snow Valley 스키장

회 비 :	성 인	어린이(12세미만)
버스만이용	$10.00	$ 9.00
리프트만	11.50	8.50
스키전세만	9.00	9.00
레슨만	5.00	4.50

*전체이용 성인 $35. 어린이 $31
문의나 신청은 536-1166 미스터 김(YMCA)에게 해 주세요(모집인원 : 선착순 약30명)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낮춰가는 것만 能事아니다"

22일 최종選擇의날… 어느大學엘 가야하나

志願率엔 虛數포함 최대2倍

1·5對1이하면 合格가능성높아

주사위는 던져졌다。대학의문을 노크하는 57만 수험생들의 전기대 원서접수가 13일로 마감됐다。이제 남은관문은 오는 22일의 최종전형일에 원서를 제출한 2개의 대학가운데 어느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느냐는것만 남았다。물론 이번 원서접수에서 1개 대학에 원서를낸 수험생은 아무런 할일이 없다。그들은 이미 최종선택까지를 끝내놓고 있는것이다。원서접수마감과 함께 2개대지원자들이 직면한 이마지막선택은 대학입시라는 긴과정에서 가장 괴롭고 까다로운 최후의 관문이다。누구도 장담할수 없고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정보도 있을수 없다。이관문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지혜는 없는것인가。

"1지망 70~80%만 合格"도 고려해야

지난해만해도 정부는 이 최후의 선택을위해 각대학별 지원자 성적분포를 공개했다。이표가 공개됨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은 자신의 합·불합격을 그런대로 가늠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게 전혀없다。각대학은 수험생들의 합·불합격이 이미 결정돼있는 이 성적분포를 최후까지 보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약속은 대학책임자들의 자리를 걸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지원대학의 성적분포를 알려고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이같은 상황아래 많은일선 진학지도교사들과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경험을상기하라고 당부한다。외형적인 경쟁률이 높았던곳일수록、예상커트라인이 높았던 학과일수록 미달사태가심했고 합격선은 낮아졌다는 것이다。한예로 지난해 國民大사대교육학과는 52명모집에 2천3백54명이 지원、무려 26대1이었으나 전형일에는 간신히미달을 넘겼다。경쟁률에 놀라도망치고 시중에나돈는 예상합격선에 겁을내 빠져나가려한 결과였다。

지난해의 경험은「낮춰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교훈을 준다。올해의 입시원서접수상황만 봐도「안전지원」경향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그결과 소위 명문대가낮은 지원율에 허덕이게 됐고 중위권또는 하위대학들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린것이다。

문교당국은 이미 이같은현상을 예상하고 과감한진학지도를 몇차례 당부했지만 효과는 신통치않았다。

진학지도교사들은 여전히 안전지원만을 강조했다。

이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올해 최종 선택에서는 무엇보다 소신껏 결정하는일이 중요할것 같다。지원대학 지원학과의 경쟁률을 심사숙고하면서 문교부가 학력고사 발표와함께 발표한 전국등위표를 다시 꺼내봐야한다。이자료만이 가장 믿을수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개대학을 지원하면서「합격이 가능한대학」과「합격이 확실한대학」을 나눠 지원했을것이다。

이 2개대학중 擇一하는데는 무엇보다 자기성적과 등위가 가리키는데로 움직여야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말해 올해원서접수가 下向式지원이라는점을 생각하면 예상커트라인이 높은대학을 선택하라는 주문을 할수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경우마다 다를것이며 일률적으로 말할수있는 성격은 아니다。

또하나의 선택기준인 지원율을 냉정히 판단、활용해야한다。각대학모집학과의 지원율은 허수가 포함돼있는것이기 때문이다。올해 허수의 최대치는 2배이다。2개대지원으로 제한했기때문에 아무리 많아야 그이상을 넘을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제1지망에서 70~80%만을 뽑는다는 사실이다。예컨대 지원학과의 지원상황이 1백명모집에 1백50명이 와 1·5대1의 지원율을 보였다면 이학과의 모집인원은 1지망충원율인 70명 혹은 80명으로 봐야지 1백명으로 생각하면잘못이다。

제1지망으로 70%를뽑는 서울大·高麗大의경우 따라서 모집인원은 70명이고 지원율의 최대치는 2·1대1이 아니라 2·1대1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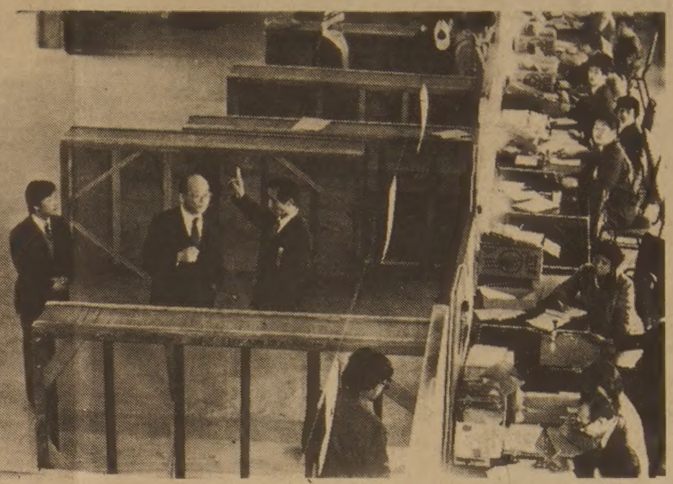
그러나 이경우 지원자 1백50명 전원이 전형에 응할리는 물론없다。상당수가 다른대학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한다。

얼마나 빠져나갈것인가 하는것은 물론 아무도 모른다。그러나 많은 고교교사들은 최소한 3분의1선 즉 1백50명중 50명은 빠져나갈것으로 가정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서접수상황에서 나타난 특징 즉 명문대의 낮은지원율과 중위권대학의 심한지원율을 명심할 필요가있다。1·5대1안팎의 명문대학과를「합격가능한대학」으로 지원하고 중위권대학을「합격이 확실한대학」으로 지원한 수험생이라면 소신을갖고 명문대를 지원해보는게 현명할것같다。

1·5대1의 지원율은 지원자중 그보다 상위권대학으로 빠질 수험생들을 가늠하면 실제 모집인원에 빠듯한 경쟁률로 볼수있고 자칫 미달까지 예상되는 경쟁률이기 때문이다。문교부가 지난해 입시이후 최종집계한 명문대의 합격선은 시중 입시전문지가 추계한선보다 사실상평균 5~10점이상씩 낮은것이었다。

【金時福기자】



◇한산한窓口엔「總長」도 13일 하오3시 서울大원서접수창구가 예상과달리 지나치게 한산하자 權彛赫총장(가운데 안경낀분)이 직접 접수창구로 나와관계자에게 접수상황을 물어보고있다。

학교부른 公衆電話 불티

願書마감 카·폰까지동원 마지막 안간힘

마감시간 허겁지겁 學科변경 눈치派도

대학입시 원서접수가 마감된 13일 각대학접수창구에는 비좁은 합격의門을 찾아내기위한 막판「눈치작전」이 절정을 이루었다。

영하의 추위속에 각대학접수창구는 이날 상오9시부터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종일 각창구마다 20~30명의접수대열이 계속됐다。

이날 접수마감시간인 하오5시가 다가오자 각종정보를 입수、분석한끝에 학과를변경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뒤늦게 늘어나 원서를 봉투째 접수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했다。

막판 눈치작전은 학부모들이 카폰까지 동원、각대학을 지키고있는 친지들에게시간별 지원상황을 체크하는모습도 보였다。

회사원 宋모씨(35)는 조카를위해 카폰이설치된 회사차를 몰고다니며 D대의미달학과만을 계속체크、이날 오마감시간이 임박해서야 원서를 접수시켰다。

또 D대의 공중전화에는 학부모들과 지원상황에대한 정보를 서로교환、지원학과를 정하려는 수험생들이 줄을이었다。

일부대학에서는 이날하오 4시가넘어 합·불합격의 윤곽이 잡히게되자 원서접수정보를 사전에 입수、합격가능 학과에 원서를내는 수험생도 있었다。또 마감시간인 하오5시가 넘더라도 접수자가있으면 원서를 계속받는 관례를믿고 원서를 내지않은채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얻기위해 접수자 행렬주위를 서성거리는 학생들도 많았다。

서울大는 이날 낮12시까지는 지원생들이 다소 몰려들었으나 하오가 되면서 접수창구가 한산해지기 시작、마감 1시간전인 하오4시께부터는 창구직원들이 일손을거의 놓을정도여서 학교측을놀라게 했다。

한 관계자는『예년 같으면 엄청나게 몰려올 시간인데 이렇게 한산한것을 보면 수험생들이 너무 안전합격위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고』했다。

權彛赫총장도 이날 하오3시께 접수창구로 찾아와 원서접수상황을 직접살펴 보기도 했다。

延大에서는 지원자들간에 나도는 헛정보를 막기위해벽보까지 마련、『수험생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학력고사성적을 알려주지말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환기시켜 수험생들이 엉뚱한정보에 현혹되지말것을 당부했다。

또 梨大、淑大、西江大등은 원서접수현황판을 만들어 응시생들에게 매시간마다 지원현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延大측은 지원자를 유도하려는듯 13일하오2시에도 상오9시현재의 현황판을 그대로내걸어두고 있다。

梨大는 접수요원들이 마이크로 응시생들의 이름을불러 수험표를 교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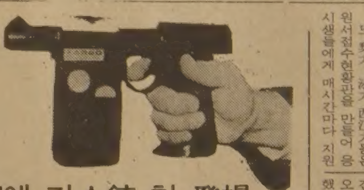
원서교부자체가 4천6백60장으로 정원의약3배나 팔린西江大는 경영、경제、화공、수학、국문、철학、종교등 15개학과가 이날하오2시현재 미달상태를 면치못하고 있었는데 학교측은『예상외로 접수창구가한산、지원자체가정원에못미칠학과도생길것같다』며걱정하기도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마감시간이 하오5시로 되어있지만시간제한을 두지않고 수험생이 오는대로 계속접수를 받기도했다。

警察에 가스銃 첫 登場

美서 1차로 30정들여와

강력·人質犯대처



◇강력범이나 인질범에 대처하기위해 美國에서 수입、일선경찰에 보급된 가스총。

인질범등 포악한 강력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내경찰서에 가스총이 선보였다。

전장20㎝의 권총모양인 이가스총은 미국에서 수입한것으로 강력범이나 인질범에 대항할때 가스나물감을 발사、범인을 항거 불능케 한다는것。

사정거리 1백m인 이가스총은 유리창을 뚫는 장치도있어 인질사건에 용이하게 쓸수있다는것。

치안본부는 1차로 30정을 도입、서울시경을 비롯、일선경찰서에 지급했는데 성능을 보아 전국경찰에 확대할 계획이다。

올 건물課標 평균10%引上

내무부 35坪넘는아파트엔 15~20%線重課

내무부는 13일 올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난해보다 평균10%이내의 선에서 인상할것을 내용으로하는 82년도 과표조정지침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지침에서 각시·도는 올해 건물분과표를 평당 기준가격은 그대로 두고 구조별·용도별·지붕별·지역별지수를 조정、전체과표가 10%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했다。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도 지난1년동안 도로·교량등 각종 건설공사나 올해의 예정공사、버스노선 조정등에 따른 지가의 변동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과표를정하되 이역시 도매물가상승률을 초과치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토록했다。

한편 내무부는 과표조정에 특례를 인정、단독주택 1백평이상건물과 90평이상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20%를、50~1백평 단독건물과 35~90평 아파트에는 15%를 각각 인상토록하고 20평이하의 단독주택과 25평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15%씩 감산토록했다。

내무부는 특히 각시·도가 과표를 10%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내무부의 허가를 받도록하는한편 올해부터 각시·군·구단위별로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액등을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개별통지하는「과세예고제」를 실시키로했다。

지난해에는 과표 표준액이 평균 18%인상된바있으며 올해 평균 10%인상될경우 연간 5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난다。

20代처녀變死 셋방서、外傷없어

【釜山=聯】20대 처녀가 세든 방에서 10여일만에 시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상오8시께 釜山市南區龍湖2洞561 朴태순할머니(77)집에 세들어사는 徐정숙양(26·경남巨濟郡長木面栗川里)이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 朴할머니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朴할머니에 따르면 1개월전 자기집에 세든 徐양이 10여일간 보이지 않아 이날 아침 방문을 열어보니 이불을 덮은채 반듯이 누워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체가 별다른 외상없이 부패된것으로 미루어 연탄가스에 중독、숨진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체를 부검키로 했다。

MBC·TV고장 2시간 放映못해 12일 서울·京畿

12일 하오5시30분부터 7시28분까지 1시간 58분동안 남산송신소의 기계(음성과 영상을 혼합하는 장치)고장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그러나 서울·경기지역이외는 남산송신소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정상으로 방송되었다。

한편 MBC·TV는 12일 방송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13일하오 정규방송 시간이전에 방송했다。

한풀꺾인 지각寒波

17일께 눈… "暖冬 사라졌다" 오늘 최저零下13도

이상 난동끝에 12일부터 닥친한파는 13일에도 계속돼 大關嶺의 영하17·8도를 비롯 春川영하15·5도 서울영하12·6도 濟州영하0·4도등 전국이 영하권에들었다。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이번추위는 13일을 고비로 점차 누그러져 14일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은 영하11도、최고영하2도、15일은 최저 영하10도、최고 영하1도로 평년과 비슷하다가 16일부터는 예년기온을 웃돌지만 연초와같은 이상난동은 없겠다는 것。

한편 기상대는 이날발표한 주간예보를통해 15일 호남서해안지방은 지역적으로 한때 눈이내리고 기압골의통과가 예상되는 17·18일께는 전국적으로 한때눈이오겠으며 기온은 예년(서울 중부 영하5~10도)과 비슷하다 다소낮아지고 강수량은 평년보다적거나 비슷하겠다고 밝혔다。

정기旅客船을 압류 莞島·高興주민불편

【莞島=聯】전남莞島항에서 高興郡녹동항까지 매일 정기운항해온 쾌속여객선 호남호(55톤)선주 金亨南씨(45·高興郡錦山面大興里)가 은행빚을 갚지못해 이배가 압류되는 바람에 12일 현재 운항을 하지못하고있다。

金씨는 지난79년 산업은행麗川지점에서 6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호남호를 건조、莞島와 녹동항간을 운항해왔는데 그동안 적자운영으로 은행에 납부해야할 원금과 이자2천6백만원을 갚지못해 은행에 압류됐다。이배가 압류되는바람에 莞島읍주민들은 물론 高興지방주민등 1만여명이 불편을겪게됐다。

釜山 人口증가율 전국最高

80년末 316萬…10년동안 1·7倍불어나

【釜山=聯】지난 10년동안 釜山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 최고인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산상공회의소부설 부산경제연구센터가 부산지방의 인구동태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0년말 부산의 인구는 3백16만여명으로 지난 70년의 1백88만명보다 10년동안 약1·7배가까이 불어났으며 이 기간중 매년평균 인구증가율도 5·3%로 서울의 4·2%보다도 높고 전국평균 1·7%보다는 3배에가까운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의 인구밀도는 1평방㎞에 7천3백3명으로 10년전 5천29명의 1·4배이고 전국평균밀도 3백86명에 비해서는 18·9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증가율도 연평균 6·6%로 지난 10년동안 1·7배로 늘어난 68만7천4백여가구로 집계됐다。

부산의 인구증가율이 근래들어계속 전국최고를 기록하고 있는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전입인구가 부쩍늘어나고 있는데다 노동력이 크게 집중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작곡가 吉屋潤「詩畵초대전」

◇吉屋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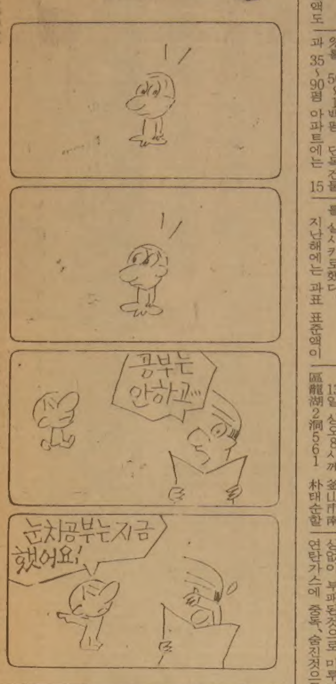
작곡가 吉屋潤씨(55)의 작곡연주생활35주년을 기념하는「吉屋潤詩畵초대전」이 14일부터 24일까지 미도파화랑에서 열린다。고려문예원이 마련한 이 시화전에는 吉씨가 음악생활 틈틈이 써온 시「세월」「물결」「바다와 나」「님과 술과 노래」「영란의 시」「78년 여름」등 45편이 東·西洋화가 19인의 그림에 실려 선보인다。그림은 卞鍾夏·朴栖甫·金埴·元文子·金秋培·姜智周·禹熙春·金昆含·申東雨씨와 일본의 伊丹潤씨등이 맡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吉씨는『비록 음악의 외길을 걸어왔지만 소년시절부터 늘 詩를 좋아했고 詩心에 젖어 살아왔다』며 순수한 마음을 열어 보이기 위해 초대전에 응했다고 밝혔다。

美코미디언폴·린드

TV쇼「할리우드광장」의 인기코미디언 폴·린드가 10일밤 리벌리 힐즈 그의 자택침대에서 자는듯이숨진시체로 발견되었다。향년65세。

두꺼비 안의섭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대그우드, 내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네"
"첫째, 자네 봉급을 올려주지 않을걸세"
"그럼 좋은 소식이란 뭡니까?" "그게 좋은소식이야"
"체!"

謹賀新年 신년특별세일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도 계속 저희 **빅세븐선물센타**를 애용해주시고 지도편달 바랍니다

빅세븐선물센타 (旧 아세아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TEL: 533-7966 대표 김 영 철

"LA서 金메달따 榮光에 보답"

本社제정 最優秀新人賞 河亨柱선수의 결의

最強 미하라擊破가 과제

U大會 목표로 6시간씩 猛訓

제16회 한국신인체육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받은 유도의 河亨柱, 남자 장려 신인인 배구의 李鍾敬, 여자 장려 신인인 탁구의 梁英子는 한결같이 한국스포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河亨柱는 오는8월 유니버시아드 대회서 금메달을 따내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서는 한국유도의 숙원인 金메달을 꼭 따내겠다고다짐했다. 李鍾敬은 남자배구가 中共벽을기어이 허물어 뜨리고 세계무대로 도약하는데 혼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우수신인 河亨柱

『상이라는것은 잘한다는 칭찬이라기보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있읍니다. 상을 받고보니 더 어깨가 더욱무거워졌읍니다. 충실히연습을쌓아 국제무대서메달을따내는것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알고 더욱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81년도 한국신인체육상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河亨柱(東亞大2년·1m83·하프헤비급)는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며 유도를 양어깨에 짊어질 굳은 의지를 보였다.

작년7월 제4회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서 무제한급 금메달, 하프헤비급 은메달을 따내 두각을 나타냈고, 네덜란드 세계유도선수권대회서는 하프헤비급서 동메달을획득, 河는 무명의 풋나기에서 일약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했다.

하프헤비급서 河亨柱의 강적은 日本의 미하라(三原). 河는 아직 미하라와 싸운적이 없지만 미하라를 꺾는 것이 앞으로 그에게 부과된 과제이며 바로 정상급으로 올라가는 지름길.

『미하라는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타이프로 알고 있읍니다. 오른쪽 선수에는 어느정도 자신을 갖고있읍니다』고 河亨柱는 미하라와의 대전계획을 나름대로 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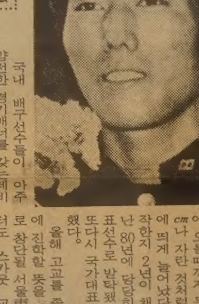
하루 2시간씩 세번 연습을 하는 河는 오는8월 핀란드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유니버시아드가 바로 미하라와의 대결장. 여기서 세계대회나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서 金메달을 따낼수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게 된다. 河는 꼭 미하라를 꺾겠다는 집념에 불타고있다.

河의 약점은 왼쪽공격선수에 약하다는것. 또한 체중을 이겨낼수있는 순발력과 순간적인 기민한 동작을 좀더 기르는것이 중요하다. 鄭三鉉코치는 『금년 동계연습은 河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河의 근성이나 자발적인 연습태도로 보아 좋은 결실을 얻을수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선수들은 우선 日本벽을 허무는것이 중요한 과제. 아시아지역서는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서만 日本선수들과 마주칠수있다. 아시안게임서는 유도가 채택되지않아 河는 아쉬워했다.

"國際大會서 배짱 더 길러"

올해 高校졸업 京畿大진학할듯



장려신인 李鍾敬

1m99의 장대 李鍾敬은 아직도 부끄럼많은소년이다. 『더 열심히 뛰겠읍니다』 신인체육상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도 수줍은 표정을 감추지못한다. 그러나 배구코트에서의 李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국내 배구선수들이 아주 얌전한 경기매너를 갖는데비해 李鍾敬은 그렇지않다. 장신에서 터져나온 강타나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올릴때면 李는 양손을 치켜들고 호쾌하게 기쁨을 표시한다. 평소 李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79년 慶北師大附高에 입학, 처음 배구와 인연을 맺을때만해도 李는 큰 키위에는 별로 주목할만한점이 없었다. 그러나 고교3년에 오를때까지 무려 키가 8cm나 자란 것처럼 기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배구를 시작한지 2년이 채 못되는 지난 80년에 당당히 주니어대표선수로 발탁됐고 81년에는 또다시 국가대표로까지 성장했다.

올해 고교를 졸업, 京畿大에 진학할 뜻을 굳혔으나 새로 창단될 서울市廳팀으로부터도 스카웃 교섭을 받고있다.

하지만 배구에 대한 정열은 오직 한길래 뿐이다. 『국제경기에 나가면 아직까지 떨립니다. 좀더 배짱을 키우고 단점보완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고 앞으로 그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高2年으로 代表로 뽑혀

宿敵 中共과 가장 잘싸운 底力

여자장려신인 梁英子

국가대표탁구팀의 일원으로 유럽원정중인 딸 梁英子를 대신해서 장려신인상패와 상장을 받아든 아버지 梁炳欄씨(65)는 『裡里에서 딸의 수상소식을 듣고 올라왔다. 딸에게 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梁英子의 소속학교인 裡里一女高의 李重珏교장도 참석, 梁炳欄씨를 축하해 주었다.

梁英子는 裡里一女高2년생인 지난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기성강호들을 누르고 14승2패의 전적으로 1위를 차지,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었다.

1m65, 54kg의 좋은 체격과 중진드라이브로 플레이의 폭이 넓은 유망주 梁英子는 지난해 말 시작된 대표팀의 유럽원정에서 가장 어린경력에 비해 최강 中共선수들과 가장 근접전 경기내용을 보여주어 정상탈환을 노리는 한국탁구계에 큰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梁英子는 朴末粉(董花女高)과 함께 스칸디나비아·오픈에서 복식준우승을 차지했으며, 혼합복식에서도 3위를 마크, 李壽子의 대를 이을 국가대표 에이스의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침체歌謠界 活路개척 1차사업

새「목소리」를 찾아라

◇趙容弼

◇羅勳兒

◇李銀河

◇혜은이

◇尹시내

기사회생의 길은 열릴 것인가. 지난2년간 한국가요사상 최악의 불황으로 신음해온 가요계는 새해들어 공동체의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있다. 집약된 의견은 ▲신인발굴 ▲불법음반추방 ▲유통구조개선등으로 침체를 벗어보자는 것.

또한 통금해제와 중고생의 교복·두발자율화등 자유화의 물결을 이용한 경기부양책도 대두되고 있다.

81년은 80년과 마찬가지로 趙容弼이 독주해왔다. 지난연말 그는 두방송사의 최고 인기가수상을 비롯해 6개의 트로피를 안음으로써 건재한 인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趙容弼 한가수에게만 음반판매를 의존할수없다는것이 가요계의 새해움직임이다. 우리나라 가요계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라이벌싸움이 치열한수록 음반시장이 호황을 누렸다. 羅勳兒—南珍、金富子—金세레나—曺美美、李洙美—方珠蓮등의 경쟁시대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趙容弼에 필적할수있는 새목소리를 찾아내야한다는 것이 제작사들의 새해 1차사업이다. 16개제작사중 10여제작사가 신인발굴에 손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기판도에 변화가 내다보인다.

이같은 라이벌전에 의한 경기부양기미가 지난연말 羅勳兒의 재등장으로도 나타났다. 그의 신곡 「대동강 편지」가 출반 1개월만에 25만장(카세트·카트리지포함)이 팔려 음반시장의 경기는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회복세를 신인의 등에 지워 활로를찾고 골드·디스크(LP50만장)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작사의 설계다. 그러나 신인의 성공여부가 미지수이고 보면 올 상반기는 羅勳兒—趙容弼 양대산맥이 음반시장을 좌우할것으로 보인다. 그외 崔憲·崔炳傑·尹秀一·金滿洙등이 무대를 누비고, 여자가수로는 혜은이·尹시내·李銀河·玄淑·李貞姬·林會利등이 지난해에 이어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신인으로는 金民植·鄭在恩·李哲植·李東基·金賢植、중창부문에서는 유심초·너와나랑·논두렁밭두렁·국보자매·회자매·상록림등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趙容弼 맞설 新人찾아나서

不法음반 추방·유통구조 改善방안 마련

지미·오스먼드、둘리스등 來韓公演 예정

라이센스、音盤시장 이끌듯

한편 메들리집출반에 앞서 제작사들이 우려하는것은 복사판인 불법음반이다. 국내의 인기가수의 노래가 출반된지 이틀후면 그대로 복사한 해적판이 쏟아져나오는것이 음반시장의 실태. 제작사들은 공동체의식을 갖고 불법음반 추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해들어 제작사들 사이에 음반시장유통구조개선운동이 본격화하고있다. 지난해 음반도매상의 부도액은 약25억원에 이르고, 그 여파로 곤경에 빠진 제작사들은 현금거래방법을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사에서는 소매상과의 직거래제를 시도하고있어 유통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음반제작사의 명맥을 이어온것은 외국가요복제품. 따라서 올해도 음반시장은 라이선스음반이 이끌어갈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출발한 太陽·大星두 레코드사가 많은 가수를 전속으로 확보하고 트로트중심의 국내가요창작에 신경을 쓰고있어 가요발전에 기대가 크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외국가수들이 한국팬들 앞에 섰듯 올해에도 해외인기 가수들이 상륙할것으로보인다. 내한이 예정돼있는 가수로는 둘리스 놀런즈、맨해턴、지미·오스먼드、카니·프랜시스등. 한편 趙容弼은 4월중 日本에、羅勳兒는 美國에 공연계획을 세우고 있다.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지난해 가요계특색 중의 하나는 유명가수들의 디너쇼가 많았던 점. 올해도 예외는 아닐것으로 보이는데、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지적이다.

올해의 가요계는 통금해제에 따른 쇼무대의 증편과 원가의 자율화바람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러나 제작자들은 라이선스음반에만 의존하지말고 의욕과 과감한 투자로 역량있는 신인을 발굴、우리의 가요를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가요팬들이 공감하고함께 부를수있는 건전한 가요가 많이나올것을 기대한다. 【李亨基기자】

五輪대비 全國규모大會러시

9개團體서 16개大會 新設계획

새해들어 올림픽종목인 육상을 비롯한 수영·펜싱등 체육회가맹경기단체의 신규전국규모대회창설이 러시를 이루고있다.

올림픽의 메달박스인 육상·수영을 비롯, 핸드볼·하키·사이클·체조·펜싱·농구와 태권도등 9개단체는 오는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경기력향상을위해 전국규모대회를 창설、금년에 모두16개대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육상은 3월의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전국고교마라톤대회등 무려 5개대회가 창설돼 육상중흥의 초석을 다졌으며 핸드볼과 하키·펜싱이 각각 2개대회씩을 만들었다.

특기할만한것은 신설대회들이 농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인기종목들이나 이를 계기로 인기종목에 버금가는 팬들을 모으게 될것같다.

◇육상 ▲서울국제마라톤대회(3월) ▲제1회 전국고교20km 단축마라톤대회(4월말·大邱) ▲제1회 실업단및 대학대항30km마라톤대회(9월) ▲범국민달려기대회(매월1회) ▲장거리공인기록회(연6회)

◇핸드볼 ▲제1회전국중·고·대학생대회(7월) ▲제1회KBS배쟁탈 전국시도대항 국민학교대회(9월)

◇하키 ▲제1회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남녀중·고대회(8월) ▲제1회회장기쟁탈 전국종합선수권대회(11월)

◇사이클 ▲전국중·고·일반·여자순환도로사이클대회(연48회)

◇수영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회(9월)

◇체조 ▲제1회창연대기쟁탈전국시도대항중·고대회(9월)

◇태권도 ▲제1회협회장기쟁탈시도대항대회(9월)

◇펜싱 ▲제1회전국대학선수권대회(7월) ▲제1회전국남녀실업선수권대회(9월)

◇농구 ▲제1회전국국민학교대회(9월)

슈나이더 4冠王

美國際수영

【게인스빌(플로리다) 10日 AP=聯】東獨의 10대수영소녀 페트라·슈나이더(18)는 10일 이곳에서 폐막된 국제수영대회 여자1천5백m자유형에서 15분43초31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4개째의 금메달을 따냈다.

올림픽4백m혼영금메달리스트인 슈나이더의 눈부신활약으로 東獨여자대표팀은 14개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12개를 휩쓸었다.

슈나이더는 앞서 2백m개인혼영에서 2분10초60、8백m자유형에서 8분17초32로 세계신기록을 수립과 동시에 금메달을 땄으며 4백m개인혼영에서도 우승, 금메달을 획득했다.

韓·泰戰은 방콕서

토머스컵배드민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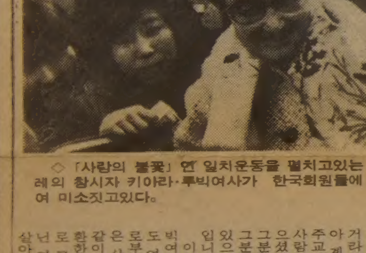
【방콕11日 AP=聯】토머스컵 배드민턴 아시아지역 예선 韓國—泰國戰이 오는30일부터 31일 이틀동안 방콕에서 열릴 것이라고 차레온·와타나신 泰國배드민턴연맹 사무국장이 11일 밝혔다.

한국은 臺灣을6—3으로, 泰國은 싱가포르를 8—1로 각각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이 경기의 개최권은 당초 한국이 따냈으나 泰國측은 그후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경기유치를 제의, 한국측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차레온사무국장은 말했다.

"한국의文化·깊은 信仰心감명"

來韓한 훠콜라레運動 창시자 키아라·루빅女史



◇「사랑의 불꽃」인 일치운동을 펼치고있는 훠콜라레의 창시자 키아라·루빅여사가 한국회원들에 둘러싸여 미소짓고있다.

새人類운동에 奉仕해온 信仰人

"한국의 많은사람 밝고 환한인상 보고 바로 여기 그리스도 살아있음 믿게돼"

훠콜라레운동의 창시자 키아라·루빅여사(61)가 연말연시가 낀 열흘동안 우리나라를 방문, 폭넓은 영신적경험담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남기고떠났다.

『휘콜라레운동의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종교에관해 알게되었고 한국인들의 뿌리깊은 신앙심이 많은 순교자들에 근거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읍니다. 또 한 우리가 펼치고있는 「마리아의 사업」이 한국에서 섭리의하나라고 확신하고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되었어요』

키아라·루빅여사의 이름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일치」의 대명사로 들린다. 그에게 있어서 일치는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이며 크리스천세계뿐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고있는 사회에서 더욱갈구되어야하는것이다.

그에 의하면 일치는『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인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때 그들사이에 현존하게되는 그리스도』이다. 일치를 사는동안에는 그누군가의 현존을반드시 느끼게되는데, 그 현존을 체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증거자가되어 세상을 회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때까지 우리와함께 계실거라고 약속하신대로 여기 남아 계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주교님, 거룩한신성체, 불우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안에 남으셨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몰라 봅니다. 그런데 그분을 확실히 볼수있는곳이 있으니 바로 일치안에서인것 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키아라·루빅여사는 이번 한국방문에서도 여러 모임을통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얼굴빛이 밝고 환한것을 보았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2천전이아니라 여기 우리가운데 생생히 살아있음을 믿게하는것이었다고 밝힌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은 스승의말은 듣지않고 증거를보여주는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있어요. 만약 우리가 먼저 그 증거가 된다면, 스승의말도 듣게되는 뜻이됩니다. 저는 모든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도록하는 누룩이 되어 非크리스천과 믿음이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파할수있도록 기원하고있읍니다』

1977년 런던 길드홀로부터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賞을 수상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그는 1921년북 이탈리아의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못한가정에서태어났다.

키아라·루빅여사가 결정적인 영성체험끝에 훠콜라레운동에나서게된것은 19세때 한 피정에 참가하면서부터 이후 38년이 지난 현재 훠콜라레운동은 세계 1백40개국에서 수백만의 회원을 포용하는 세계적운동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는 1969년에도입돼 서울에 남녀본부와 大邱에 여자본부가있고 전국적으로 4백81명(男1백50, 女3백31)의 정회원과 7천5백명(男3천1백·女4천4백)의 준회원이 가입돼있다.

이탈리아어로「벽난로」를 뜻하는 훠콜라레라는 처음 무더기진 신심에불을붙이고 서로의 공동생활을통한 일치를 모색하기위해 시작됐으나 오늘에와서는 교리를 달리하는 불교、이슬람교、힌두교와 개신교의 다른 종파와의 일치도 모색하고있으며 이운동의 결실로 독일에서는 루터교와 가톨릭의 연합체인 공동생활 형제회가 결성돼 있다. 【雨】

延·高大 6強에

大學미식축구 釜山·서울大이겨

【釜山=聯】高麗大와 延世大가 6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가장먼저 진출했다.

13일 釜山구덕운동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2회전국대학 미식축구 동계선수권대회 이틀째경기에서 B조의 高麗大는 QB 辛承賢, HB 梁承東의 활약으로 서울大를 21-8로 물리치고 2연승으로 예선수위를 차지, 결선에 올랐으며 측면및 중앙돌파, 패스플레이등 다양한전술을 구사한 延世大도 釜山大에 2점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리, 역시 예선C조1위로 결선에 올랐다.

高麗大는 이날 칫쿼터 15분께 서울大 FB 南日東에게 측면을 뚫려 6점을 내준뒤 추가공격권도 허용, 0-8로 리드를 빼앗겼다. 그러나 2쿼터 10분께 빠른발을 가진 梁承東이 서울大 중앙수비를 뚫는 과감한작전으로 터치다운한후 추가공격도 성공시켜 8-8타이를 만들었다. 이어 TB 金亨達이 QB 辛承賢의 멋진 전방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으로 이어 14-8로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高麗大는 3쿼터10분께 패스플레이로 또다시 득점한뒤 추가공격권을 킥으로 성공시켜 7점을 뽑고 13점차로 여유있게 승리했다.

◇제2일전적

조	팀	점수	쿼터별	점수	팀
▲B조	고려대학 (2승)	21	0 7 14 0 / 0 0 0 8	8	서울대학 (1패)
▲C조	연세대학 (2승)	14	0 0 6 8 / 6 6 0 0	12	부산대학 (1패)
▲A조	성균관대 (1승1패)	12	0 0 0 12 / 0 6 0 0	6	부산산업 (1패)

黃善愛등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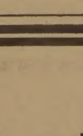
全日 오픈배드민턴

【東京12日 AP=聯】82년全日오픈배드민턴대회가 韓國의 黃善愛등 19개국으로부터 1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가운데 14일부터4일간 日本서부 고오베(神戶)에서열린다.

이번 대회는 국제배드민턴연맹(IBF)과 세계배드민턴연맹(WBF)이 작년에 통합된후 처음열리는 대규모국제대회라는점, WBF 지도국으로서 IBF주최 국제대회에 출전이금지됐던 中共이 台灣과함께 참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期待株 10명안팎

排球장신 新人테스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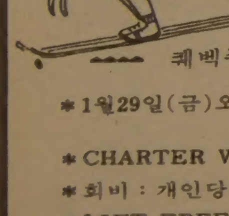


배구협회는 오는88년 서울올림픽에 장기대비키위해 발굴한 비등록 장신유망주 남자 42명, 여자 47명에대한 4일간의 실기테스트를 마쳤는데 기대주가 예상외로 적은 남녀합쳐 10명내외로 밝혀졌다.

지난8일부터장신유망주 실기테스트를 주관한 협회張慶煥총무이사는 중학교1학년부터 고교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남자의 경우 190cm, 그리고 여자는 175cm 이상의 장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배구선수로서의 적성면서 마찬가지여서 남녀 각각 5명 내외가 수확의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우수신인의최종확정은 발굴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착순



퀘벡주의 가장 큰 명산 "세넹"으로

* 1월29일(금)오후6시정각출발(브랜돈 스포츠사 앞)하여 31일(일)귀환(2박3일)
* CHARTER WAY 버스여행 7시간
* 회비 : 개인당 $180(개인별로가면 $280 소요). 11세미만어린이 $50
* LIFT FREE, 강습료 FREE 이외에 스키대여료는 별도(하루$10정도)
* 일류 콘도미늄으로 부엌시설 완비(단 음식은 각자 지참해야함. 쌀, 밥솥 기타)
* 방은 3BED ROOM UNIT 사용할 예정입니다.(6인침식가능)

◆참가 신청자중 회비 미납자는 접수가 취소될수 있아오니 조속히 회비납부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 · 한국일보 사

캐나다 ·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구독신청, 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illegible]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 토요학교버스(VAN)운전하실분 구함
토론토서부지역, PAY : 1회 $30
씨알한국인학교☎ : 441－2986, 960－0074

• 입주하셔서 2월 한달간 2개월된 아기 돌보아 주실분
☎ : 446－1346

✲ Cook Wanted ✲
KOREAN VILLAGE RESTAURANT
628 BLOOR ST. ☎ : 536－0290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다벤포드×오크우드지역)
☎ : R)960－0761, B)656－3020

일주일에 두번(월, 금)집안청소 해주실 약간의 영어를 필요로 하고 성실하고 믿을수 있는분을 원함.
☎ : 445－7745(Mrs. SHOWN 외국인)

스토아 안에있는 POST OFFICE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 : 923－1206

캐나다의 유명한 도난방지기 회사에서 딜러쉽 이나 세일즈에 관심있는분 연락요망. (영어, 한국말 가능한자)
☎ : 661－3722(Mrs. LEE)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TELEX Share하실분을 구합니다.
☎ : 978－6259(B), 226－2618(R) Mr.리

매매및 양도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매 매
• 토론토, 해밀톤, 오샤와등 외각지역의 가게들.
• 매니저 또는 후랜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VENPORT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물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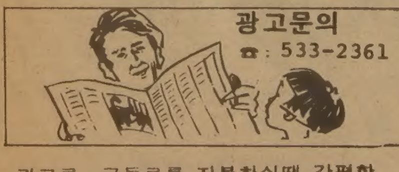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직접팝니다. 매우 이익이 높은 영·스트릿 & 에그린톤에 있는 빵집(델리카티슨), 건강상 이유로 판매함.
☎ : 낮, 487－2393, 저녁, 481－4687(Teresa)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스카보로 지역에 있는 두개의 CONVIENCE STORE을 팔고자 합니다. 꼭히 관심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 : 686－1891 오전11시~오후3시 MR. LEE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통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82(B), 534－3346(R) MR. LEE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 찬장등 가구제작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W. ☎ : 967－712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88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샐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보광한약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6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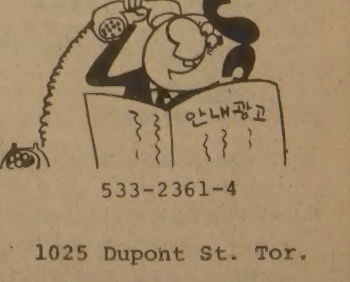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올도 曺薰鉉·徐奉洙 독무대
趙治勳9단 작년收入 日 棋界 1位
國內 入神경지 9단 곧탄생

바둑소식

◇조훈현씨 ◇서봉수씨 ◇강 훈씨

●…금년의 바둑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曺薰鉉8단과 徐奉洙7단과의 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7개타이틀가운데 5개타이틀(名人·國手·覇王·棋王·最高位)을 가지고 있는 曺8단과 2개타이틀(王位·國棋)을 지닌 徐7단은 지난해에도 모든 도전기에서 서로뺏고뺏는 치열한 접전을벌여 「영원한 맞수」임을 보여주었는데 금년역시이 두기사가 우리바둑계의 주역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姜勳4단, 徐能旭6단, 金寅8단등이 그뒤를 바짝 뒤쫓고있다.

본선리그가 끝났거나 진행중인 각棋戰의 현황을살펴보면 ▲覇王戰은 姜勳4단이 ▲國手戰은 徐奉洙7단이 각각 도전자로 결정됐다. ▲名人戰은 姜勳4단이 4승으로 1위, 徐奉洙7단과 張秀英5단이 3승1패로 2위를 달리고있고 ▲國棋戰은 曺薰鉉8단이 4승으로 1위, 金寅8단 4승1패, 徐能旭6단이 3승1패를 각각 기록하고있다.

한편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는▲王位戰은 曺薰鉉8단과 金在九7단이 4強에 先着했고 金寅8단 河燦錫7단 盧永夏7단 李基奉4단 가운데서 2명이 4強에 진출하게된다. 이밖에▲棋王戰과▲最高位戰은 본선리그와 예선전이 이제진행중에 있다.

●…지난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覇王戰(覇王 曺薰鉉) 도전자 결정국에서 姜勳4단은 金寅8단을 執白 2백69수만에 3집반차로 눌러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도전티키트를 따냈다.

이번 본선리그에서 姜4단은 金8단과 5승1패로 동률을 이루어 재대결을 벌였는데 공교로운것은 지난16기에서도 金8단과 동률수위가돼 재대국에서 金8단을격파했었다.

姜4단은 이번 도전권획득으로 지난해 曺8단과의 도전5번기에서 3대0으로 무참하게 패배당한 설욕을 씻을수있는기회를 잡은셈인데 도전1국은 오는 20일 두어진다.

●…우리나라에도 올해처음으로 入神의 경지인 9단이 탄생한다.

첫9단의 영광을안을 기사는 曺薰鉉9단. 금년봄 승단대회에서 6국가운데 2국만 승리하면 승단평균점을 넘게되는데 그의 전적으로보아 9단승단은 무난할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 승단이 쉬워 9단만도 50명이나된다.

●…일본바둑계에서 활약중인 趙治勳9단(名人·本因坊)이 지난한해동안 총4천5백16만엔(韓貨 약1억3천5백만원)의 수입을올려 80년에이어 소득랭킹 1위를 기록.

趙9단은 지난해 名人타이틀을 방어하고 本因坊位마저 탈취, 상금과 대국료만도 4천5백16만엔을 벌었는데 실제소득은 더많으리라는추측. 趙9단의 작년수입은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78년度 가또·마사오本因坊(加藤正夫)의 4천20만엔을 훨씬 [illegible]은 최고 기록이다.

●…趙祥衍바둑컬럼 제3집이 나왔다. 이번 제3집은 「名人趙治勳」시리즈 3째권으로 趙治勳名人의 오오기名人戰도전기에서 오오께 9단(大竹英雄)을 격파한 6局의 기보가 趙祥衍의 자세한 해설로 실려있다. 또한 당시名人戰본선리그 9局이 수록돼있는데 가또 단(加藤正夫)과의 아슬아슬했던 同率再對局광경등 현장감있게 그려져있다. 【宇石社刊·2천5백원】

新刊 안내
「青眉」7집 「文彩」4집

「青眉」「文彩」등 두 여시인 同人들이 새해를 맞아 同人誌를 꾸며냈다. 63년에 조직되어 꾸준히 同人활동을 펴온「青眉」동인은 [illegible]번에 7집을 발간했는데 金善英, 金淑子, 金[illegible], 金后蘭, 朴英淑, 李瑛[illegible], 林星淑, 秋英秀, 許英子씨 9명. 제7집에는 회원마다 3편~5편씩 50여편의 近詩들을 모았다. 「文彩」동인은 李鄕我, 柳津, 愼達子씨등 3명의여류 [illegible]인이며 1년에 1집씩 [illegible]집을 기획하고있다. 이들3명이 각10여편씩 [illegible] 좋은시를 내어 펴낸 조촐한 [illegible] 시집이다. 두 동인지 모두 「白眉社」에서 출간, 값은 「青眉」1천[illegible] 「文彩」1천5백원.

韓人 코치8명增
카타르 卓球붐 따라

【매나마(바레인)12日=聯合】 카타르탁구협회(QTTA)는 어린 카타르탁구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다많은 한국인코치들을 초청키로 결정한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카타르의 英字紙 데일리 걸프·뉴스는 이날 한 카타르 관리의 말을 인용, 8명의 새로운 韓國人코치들이 내달까지 카타르에 도착할 [illegible]정이라고 보도했다.

챔피언減量에 고심
"崔忠日 7대5로 不利"
현지 專門家들 對戰예상

【마닐라12日=聯合】세계권투평의회(W.B.C) 슈퍼페더급타이[illegible]를전을 4일 앞두고 권투전[illegible]가들은 챔피[illegible] 필리핀의 롤[illegible]도·나바레테[illegible] 도전자인 한[illegible]의 崔忠日(24)보다 7－5로 우세하다고 다봤다.

도전자 崔[illegible]日은 16일의 [illegible]틀전에 앞[illegible] 마닐라의 한 [illegible]육관에서 2라운드의 [illegible]파링을 가졌으며 전략노출[illegible] 꺼린 챔피언 나바레테는 [illegible]레이너가 대주는 미트를 [illegible]며 혼자 몸을푸는 정도의 가벼운 연습을하는데 그쳤다.

양선수는 공동기자회견[illegible]서 서로의 승리를장담했으[illegible] 崔忠日은 나바레테가 공개 스파링을 갖지않은데 불만, [illegible]을 거부했다.